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일본 정부의 ESG 정책 대응 / 3

- 3 | 1. ESG 정의와 국제적 논의
- 9 | 2. 일본 정부의 ESG 정책 대응

II. 일본 기업의 ESG 대응 전략 및 사례 분석 / 24

- 24 | 1. 일본 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
- 33 | 2. 일본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미쓰비시상사)

III. 글로벌 투자기업의 ESG 요구와 일본 기업의 대응 / 52

- 52 | 1. 글로벌 투자기업의 ESG 요구 내용
- 61 | 2. 기업-투자자 간 대화(engagement) 대응 현황

IV. 결론 및 시사점 / 66

- 66 | 1. 결론: 일본의 ESG 정책 특징과 전망
- 70 | 2. 시사점

참고문헌 / 73

요 약

- (ESG 확산)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기업의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
 - *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하며,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이 발표된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
- 일본에서는 UN의 책임투자원칙(20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파리협정(2015), TCFD* 권고안(2017) 발표로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증폭
 -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들어진 협의체
- 2020년 일본의 ESG 투자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2.8조 달러)로 미국(48.4%), 유럽(34%)과 비교해 낮지만, 2016년 대비 성장률은 506%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GSIA, 2020)
- (정부 정책) 일본 정부는 ESG 확대를 위해 유럽의 의무화 조치와는 다르게,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통해 기업 대응을 촉진
 - 일본 정부는 ESG 중 주로 G와 E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
 - * 환경(E): 경제산업성(2018년)과 환경성(2019년) 「TCFD 가이드스」
 - * 사회(S): 경제산업성(2017년) 「다양성2.0행동 가이드라인」
 - * 지배구조(G): 금융청 「일본판 스톡어드십 코드」(2014년), 경제산업성 「가치협력창조 가이드스」(2017년), 「기업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2018년), 「사외이사 가이드라인」(2020년) 등 발표
 - 향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모두 ESG 중에서도 S(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확대될 예상
 - 코로나 이후 투자자들은 ESG 항목 중 노사관계(해고, 급여축소), 직장환경(재택근무, 감염위험), 공급망 관리 등의 관심 증가

- (기업 대응) ESG 대응이 자사의 이익 향상과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인식 확산이 일본 기업의 대응을 촉진
 - 일본 기업은 ESG 비재무 정보와 재무 정보를 포함한 통합보고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
 - * 2020년 통합보고서 발행 기업 수는 579개사로 2010년 대비 25배 증가 (KPMG, 2021)
 - 단, 비재무정보 공시의 충분성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통합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
- (ESG 투자) 글로벌 투자기업은 ESG에 대한 대응, 정보 공시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
 - * 글로벌 투자기업의 ESG 평가 기준은 △ 기업의 ESG 과제와 위험이 명시되었는가 △ ESG 목표가 기업의 미래핵심 사업기회로 연결되는가 △ ESG 대응 상황을 공시하고 있는가를 주목
 - 일본에서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이후 투자자-기업 간의 대화(engagement)가 증가
 - *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 차원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 규범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투자자에 대해 기업이념을 설명하고 장기비전을 제시
- (시사점) ES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정책 대응이 요구
 - (정부)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정착되기까지 모범사례 추가와 함께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요구, 아울러 기업·투자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
 - (기업) ESG 경영과 정보공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
 - 최근 ESG 평가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시되고 있으므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전환이 요구

I

일본 정부의 ESG 정책 대응

1

ESG 정의와 국제적 논의

가. ESG 정의와 범위

□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과거 기업들은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무리한 사업전개를 강행하여 환경오염, 노동문제, 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많이 발생

* 재무적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ROA(총자산순이익률) 및 ROE(자기자본이익률), 주가 등

- 그 반성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측면으로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급

* 경영자가 ESG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 자사의 ESG 현황에 대한 외부 평가와 정보 수집, 경영전략 내용에 ESG 대응 방침을 포함

□ IMF는 대출기관, 투자자 및 기업의 의사결정 시 ESG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

-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 자연자원, 환경오염·쓰레기, 신 분야(기회)에 대한 정책
- 사회(Social): 인적자본, 생산자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행태

<표> IMF의 ESG 범위

구분	중분류	세분류
환경 (E)	기후변화	CO ₂ 총량(carbon footprint),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자연자원	에너지효율, 물효율, 원자재 조달, 토지사용
	환경오염·쓰레기	독성물 배출, 대기질, 폐수 관리, 전자기기 폐기물 관리, 위해물질 관리
	기회와 정책	재생에너지, 녹색건물, 청정기술, 환경·생물다양성 목표·투자
사회 (S)	인적자본	직장 보건·안전, 노동자 참여·다양성, 개발기회, 노동 관행(임금, 근로조건)
	생산책임	생산물 안전·품질, 고객정보보호, 판매관행 및 상품라벨링, 상품접근성
	관계	공동체, 시민사회, 정부
지배 구조 (G)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조·책무, 경영진 보상 및 경영효율, 회계·공시 관행, 주주권리
	기업행태	부패관리, 경쟁행위, 시스템위험 관리, 사업환경 관리, 수익의 양질성, 세금·특수관계자 거래 투명성

자료: IMF, 2021. 「ESG Monitor」 (January 5). p. 8.

□ ESG는 UN의 책임투자원칙* 발표 이래 ESG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그 배경에는 전지구적인 환경·사회 문제의 심각화 등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과제의 대두에 있음.

* 2006년 UN은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ESG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세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¹⁾

- 사회과제는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위험과 기회라는 양 측면을 가지므로, 어떻게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좌우

1) UNPRI 홈페이지. 「About the PRI」. (<https://www.unpri.org/pri/about-the-pri>). 2020.3월 기준으로 PRI 서명기관 수는 3,038개이며, ESG운용자산액은 103조 달러 규모임.

- 책임투자원칙(PRI)은 2006년 당시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이 글로벌 기관투자자에 대해 ESG의 관점을 가질 것을 제창하여 수립된 각국의 금융업계에 공통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임.
- 6대 책임투자원칙(PRI)
 - － 원칙 1: ESG 문제를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과정에 통합
 - － 원칙 2: ESG 문제를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통합
 - － 원칙 3: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요구
 - － 원칙 4: 금융 산업의 PRI 수용과 이행을 촉진
 - － 원칙 5: PRI 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 － 원칙 6: PRI 이행을 위한 활동과 과정에 대한 외부 보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에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계승·발전시키는 형태로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17개의 개별 목표*로 구성되어 빈곤·기아 퇴치 등 MDGs의 미달성 과제에 추가하여 다양성·환경문제·격차시정 등의 과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투자자에게도 대처를 요구
- * ① 빈곤 종식, ② 기아 해소, ③ 보건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양성평등, ⑥ 깨끗한 물과 위생, ⑦ 깨끗한 에너지,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 혁신과 인프라, ⑩ 불평등 완화, ⑪ 지속가능한 도시, 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 생태계, ⑮ 육상 생태계, ⑯ 평화와 정의, 제도, ⑰ 파트너십

나. ESG 투자 규모와 전략

□ ESG 투자는 정량적인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를 고려하는 투자(운용)를 의미

- ESG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으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 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임팩트/공동체 투자, 기업 관여 및 주주활동의 일곱 가지로 구분됨(표 참조).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전세계 주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투자 현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을 2년 주기로 발간. GSIA는 ESG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개념을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등과 같은 의미로 포괄적 사용

<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별 정의

투자 전략	정의 내용
1. 네거티브 스크리닝	- ESG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산업, 기업을 펀드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2. 포지티브 스크리닝	- 업종별 비교를 통해 ESG 성과가 우수한 산업,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
3. 규범 기반 스크리닝	- OECD, ILO, UN 및 UNICEF 등이 발행한 국제 규범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관행 기준에 대해 투자를 심사
4. ESG통합	-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분석에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
5.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테마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 등)
6. 임팩트 투자	-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투자(소외된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포함)
7. 기업관여 및 주주활동	- ESG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기업의 직접 관여(고위 경영진,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주주 제안서 (공동) 제출, 대리 투표 등을 통해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권한 사용 여부

자료: GSIA.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미국이 유럽을 상회하는 규모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
 - 2020년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투자금액은 35조 달러로 2016년대비 55% 증가하였고, 2018년대비 15% 증가함.
 - 2020년 미국의 지속가능한 투자규모는 17조 달러로 2018년대비 42.4%나 급증, 전세계의 절반 정도(전체의 48.4%)를 차지
 - 유럽은 2018년까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2018년대비 14.6% 감소하며 12조 달러를 기록
 - 일본은 2020년 2.9조 달러로 2018년 대비 31.8% 증가하며, 전세계 규모의 8.1%를 차지

<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투자액 규모 및 증가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6	2018	2020	2016-2020 증가율	2018-2020 증가율
유럽	12,040	14,075	12,017	-0.2	-14.6
미국	8,723	11,995	17,081	95.8	42.4
일본	474	2,180	2,874	506.3	31.8
캐나다	1,086	1,699	2,423	123.1	42.6
호주/뉴질랜드	516	734	906	75.6	23.4
합계	22,838	30,683	35,301	54.6	15.1

자료: GSIA.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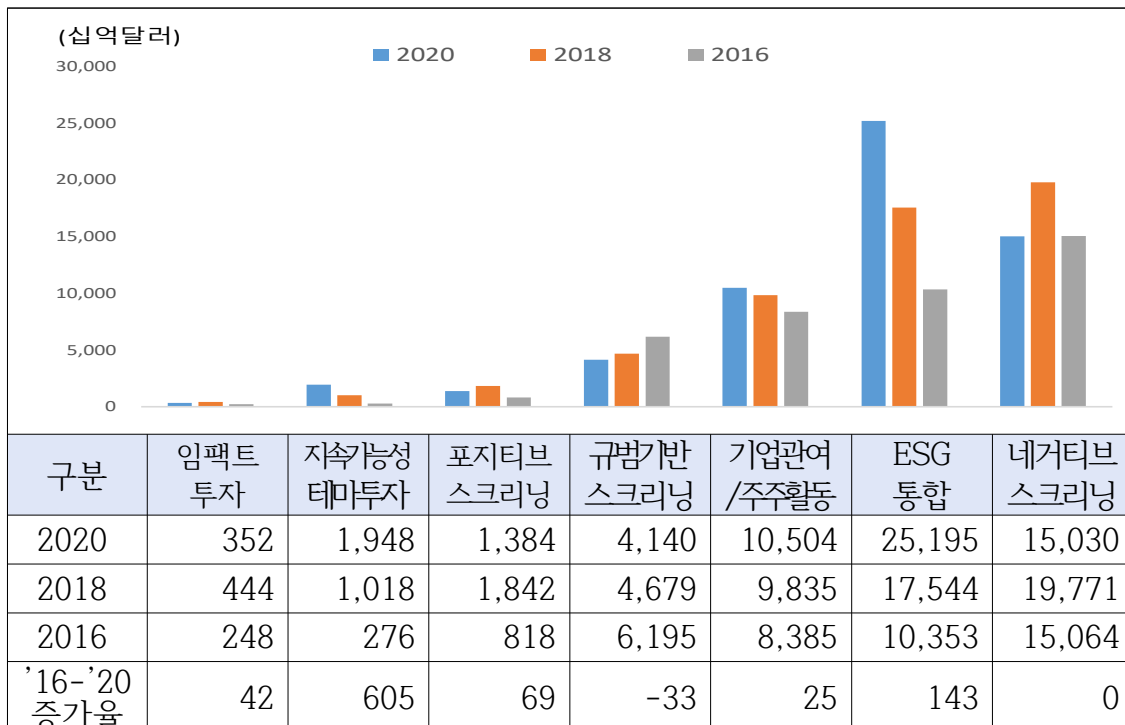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별 규모를 보면, ESG 통합 투자가 2018년 17조 달러에서 2020년 25조 달러로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규모) 다음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15조 달러), 기업관여/주주 행동(10조 달러), 규범기반 스크리닝(4조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증가율) 2016년대비 2020년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605%), ESG통합(69.5%), 포지티브 스크리닝(69%)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규모별로 각국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2020년 25조 달러 규모의 ESG통합 투자는 미국(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16%), 캐나다(9%), 일본(8%), 호주/뉴질랜드(3%)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10조 달러 규모의 기업관여/주주활동 투자는 유럽이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임.
 - 특히, 일본은 7가지 전략 중 기업관여/주주활동(17%), 포지티브 스크리닝(10%) 전략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별 규모 증가 추이(2016→2020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GSIA.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2 일본 정부의 ESG 정책 대응

가. 환경(E)

- ESG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업정보공시가 중요
 -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²⁾
 - 특히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 권소시엄이 중심이 되어 개정 작업을 진행
- (경제산업성-TCFD* 권소시엄) 「TCFD 가이드선스 2.0」
 -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
 - 20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투융자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
 - 2017.6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가 「TCFD 권고안」을 발표
 - * G20 금융안정위원회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업의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든 글로벌 협의체임.

2) 국토교통성에서도 2021.3월에 일본 부동산 분야의 실정에 맞는 TCFD 권고안에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방법 등을 해설한 「부동산 분야 TCFD 대응 가이드선스」를 수립·발표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TCFD 권고안에 기초한 기업 공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8.12월 그 해설서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선」 (「TCFD 가이드선」)를 책정
- 이를 계기로 TCFD 권고안에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간 주도로 2019.5월 TCFD컨소시엄이 설립
- TCFD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기업의 효과적인 정보 공시 및 공개된 정보를 금융기관의 적절한 투자 판단에 연계시키기 위한 대응을 논의함.
- 2020.7월 TCFD컨소시엄은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TCFD 가이드선」을 개정(해설, 업종별 가이드선, 사례집 보완)하여 「TCFD 가이드선 2.0」을 발표

<표> 「TCFD 가이드선 2.0」의 주요 내용

목차	내용
제1장 머리말	- 배경, 가이드선 작성 및 <u>개정 취지</u>에 대해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해설 - 가이드선과 TCFD 권고안과의 관계를 설명 - 칼럼을 통해 특정 이슈를 심도 있게 해설
제2장 TCFD권고안에 따른 공시를 위한 해설 -TCFD 권고안의 4 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의문점 에 대해 해설(공시 사례 포함)	- 정보 공시 매체 · 중요사항은 유가증권보고서이며, 이외에 통합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 가능 · 복수 매체에서의 공시 사례, <u>공시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u> 등 해설 - TCFD권고안의 4개 주제에 관한 해설 · <u>국내외의 문헌을 바탕으로</u> 각 주제에 대해 해설 [해설 사례] · 전략: 연구개발과 <u>이노베이션의 공시</u> 방향, IEA의 기존 시나리오 등에 대해 소개 · 지표와 목표: 기업가치 창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 <u>간접 기여량</u> 등을 소개 -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의 공시 방법 · 각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별로 공시

	- 중견·중소기업의 TCFD 대응 방법 · 전세계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는 기업은 사업기회의 적극 공시를 권장
제3장 업종별 가이드 -기후변화의 위험·기회가 상이한 업종 별로 바람직한 전략 제시 방법, 권장하는 공시의 관점을 해설	- 자동차: 주행 중 배출 감소를 할 수 있 차종의 기술개발,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향후 목표 설정(대수, 비중) - 철강: 제조과정의 효율(에너지단위) 향상을 위한 대응, 첨단기술개발에 관한 진척과 전망 - 화학: 환경공헌 제품을 통한 감축 기여량과 연구개발 대응, 공급망 관리의 대응(원료조달 방침 등) - 전기·전자: 배출량 감축에 연계된 IoT솔루션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에너지 관리 등) -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의 고효율화, 차세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당 기술에 관한 방안, 효율개선 효과 - 식품: 원료와 수자원의 공급 위험 및 대책, 음식물로스 대책을 포함한 배출량 감축 대응과 제품개발, 사업기회의 특징 - 은행: 시나리오 분석(여신 비용), 거버넌스 위험 관리 체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의 목표 설정과 실적 - 생명보험: ESG투융자 대응방침,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파악, 투융자 기준, 투융자 대상과의 대화(engagement) - 손해보험: 손보 분야의 위험 관리, 방재·감재 대응, 기후변화와 신기술에 대응한 보험·서비스 제공

주: 표의 내용 중 밑줄은 개정된 부분임. 제3장에서 식품,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네 가지 업종은 가이드 2.0에서 추가된 부분임.

자료: 経済産業省. 2020. 「TCFDガイド2.0の概要」.

□ (환경성) 「TCFD를 활용한 경영전략 입안 권고 -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실천 가이드」

- 환경성은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TCFD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기회의 시나리오 분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그 사례 등을 정리한 실천 가이드를 작성(2019년 최초 발표)
- 「실천 가이드 ver 2.0」(2020년)의 내용 및 2020년 지원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1.3월 「실천 가이드 ver 3.0」을 발표

- ① 실무 담당자, 경영층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② 공시에 관한 설명과 사례를 추가하여 시나리오 분석 범위를 확대 ③ 시나리오 분석 순서에 질적 측면(단계) 추가 등을 보완

<표> 환경성 「실천 가이드 ver 3.0」의 구성

기업 요구 사항	실천 가이드의 구성
TCFD 권고안 내용과 시나리오 분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제1장 머리말 이 실천가이드의 목적과 배경에 있는 TCFD 권고안의 개요 및 의의, 시나리오 분석의 위상을 해설
시나리오 분석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 실천 포인트를 알고 싶다	제2장 시나리오 분석 실천의 포인트 환경성의 지원 사례에서 추출한 시나리오 분석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 실천 포인트를 해설
일본 기업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분석한 사례를 분석 단계별로 알고 싶다	제3장 섹터별 시나리오 분석 실천사례 환경성의 지원 사례(18개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어떻게 할지를 해설
시나리오 분석 시 참고가 될 만한 방법, 문헌을 알고 싶다	Appendix 지원 사례에서 참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 시의 소재를 제공

자료: 環境省. 2021.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ー 気候関連リスク・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オ分析実践ガイド ver3.0」.

나. 사회(S)

□ 사회(S)와 관련된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환경(E) 및 거버넌스(G)와 비교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많지 않음.

- 경제산업성은 사회(S)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2017년에 「다양성2.0행동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년 개정)함.

- 이외에 관련 시책으로 다양성, 여성활약 및 건강경영을 추진하는 우수기업들을 선정·시상하고 있음.³⁾

□ (경제산업성) 「다양성(Diversity)2.0행동 가이드라인」

- 2017.3월 기업 이사회들의 다양성 확보와 기업과 노동시장·자본시장의 대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성 2.0행동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6월 개정)

* 경제산업성은 ‘다양성 경영’을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innovation)을 창출하여 가치창조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영이라고 정의

- 다양성2.0 행동 가이드라인 실천을 위한 일곱 가지 행동*을 제시하고, 기업 최고 경영자의 강한 리더십 하에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기대

* ① 경영전략 수립 시 다양성을 포함 ② 추진체제 구축 ③ 거버넌스 개혁 ④ 전사적인 환경 및 규정 정비 ⑤ 관리직 행동·의식 개혁 ⑥ 종업원 행동·의식 개혁 ⑦ 노동시장·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공시와 대화

□ 경제산업성의 다양성 관련 시책 사례

- (다양성)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다양성 추진을 경영 성과로 연결시키는 우수 기업들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
 - － 이는 기업의 다양성 추진 관련 선진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각 기업의 다양성 대응 확대를 목표로 함
 - － 2016년까지 「新다양성 경영기업 100선」으로 선정
 - － 2017년부터는 '다양성2.0'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100선 프라

3) 한편, 일본노동조합총연맹(2010년 「노동조합을 위한 위커스 캐피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책정(2015년 개정), 연금기금 투자 시 노동자 권리보호 고려를 요구), 일본변호사협회(2018년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위험 대응 가이드선 - 기업·투자자·금융기관의 협동·대화를 위해」를 공표, ESG 과제의 위험 측면인 인권침해 등에 대응) 등에서도 사회(S) 관련 가이드선을 발표

임」으로 선정⁴⁾

- (여성활약) 경제산업성이 도쿄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2012년부터 여성활약이 우수한 상장기업을 '나데시코 종목'으로 선정
 - － 경제산업성은 여성활약이 우수한 상장기업을 「나데시코 종목」(なでしこ銘柄)으로 선정, 2020년 45개사를 발표
 - － 선정 기준: 일정한 스크리닝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여성활약도 조사의 점수 결과에 재무지표(ROE) 가점을 부여하여 업종별로 선정
- (건강경영) 2015년부터 전략적으로 건강경영을 실천하는 우수한 상장기업을 '건강경영 종목'으로 선정·발표
 - － 경제산업성은 매년 선진사례 발표(홍보)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대응을 가속화하고자 함.
 - － 경제산업성은 도쿄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전략적으로 건강경영을 실천하는 우수한 상장기업을 「건강경영 종목」(健康経営銘柄)으로 선정('21년 48개사)
 -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중시하는 투자자에 대해 매력 있는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건강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건강경영 대응이 더욱 촉진되는 것을 목표로 함.
 - － 선정 기준: 경제산업성의 「건강경영도 조사」 결과를 ① 경영이념·방침, ② 조직·체제, ③ 제도·시책 실행, ④ 평가·개선, ⑤ 법령 준수·위험 관리의 5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무성과 등을 감안

4) 経済産業省 홈페이지. 「重要なお知らせ」.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diversity/kigyo100sen/index.html>).

다. 거버넌스(G)

□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리스크 억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에서는 경영자원의 집약(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본생산성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의 공격적인 경영(risk-take)을 뒷받침하는 사외이사 정비와 이사회 평가, 인센티브 보수 도입 등의 다양한 체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표> 일본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추진 현황

시기	구체적인 시책 (추진 주체)	추진 현황
2014	JPX日経인덱스400(도쿄증권거래소)	'14.1월 발표 시작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금융청)	'14.2월 공표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 -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프로젝트(경제산업성)	'14.8월 이토보고서 발표
2015	회사법 개정(법무성)	'15.5월 시행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촉진 연구회(경제산업성)	'15.4월 보고서 발표
	기업지배구조 코드(도쿄증권거래소)	'15.6월 적용 시작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회(경제산업성)	'15.7월 보고서 발표
2016	금융심의회 「공시 작업반」 (금융청)	'16.4월 보고서 발표
2017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CGS 가이드라인) 책정(경제산업성)	'17.3월 가이드라인 책정
	가치협창 가이드스(경제산업성)	'17.5월 발표
	이토보고서2.0(지속성장을 위한 장기투자(ESG·무형자산투자) 연구회)	'17.10월 발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금융청)	'17.5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2018	상담역·고문 공시(도쿄증권거래소)	'18.1월 적용 시작
	법제심의회 회사법제(기업지배구조 관계) 부회(법무성)	'18.2월 중간시안 발표
	가치협창가이던스 해설자료(경제산업성)	'18.4월 발표
	기업지배구조 코드(도쿄증권거래소)	'18.6월 개정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CGS 가이드라인) 개정(경제산업성)	'18.9월 개정
2019	그룹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그룹 가이드라인) 개정(경제산업성)	'19.6월 발표
2020	사외이사의 역할대응에 관한 실무지침(사외이사 가이드라인) 책정(경제산업성)	'20.7월 발표
2021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의 개정안(금융청)	'21.4월 개정안 발표

자료: 해당기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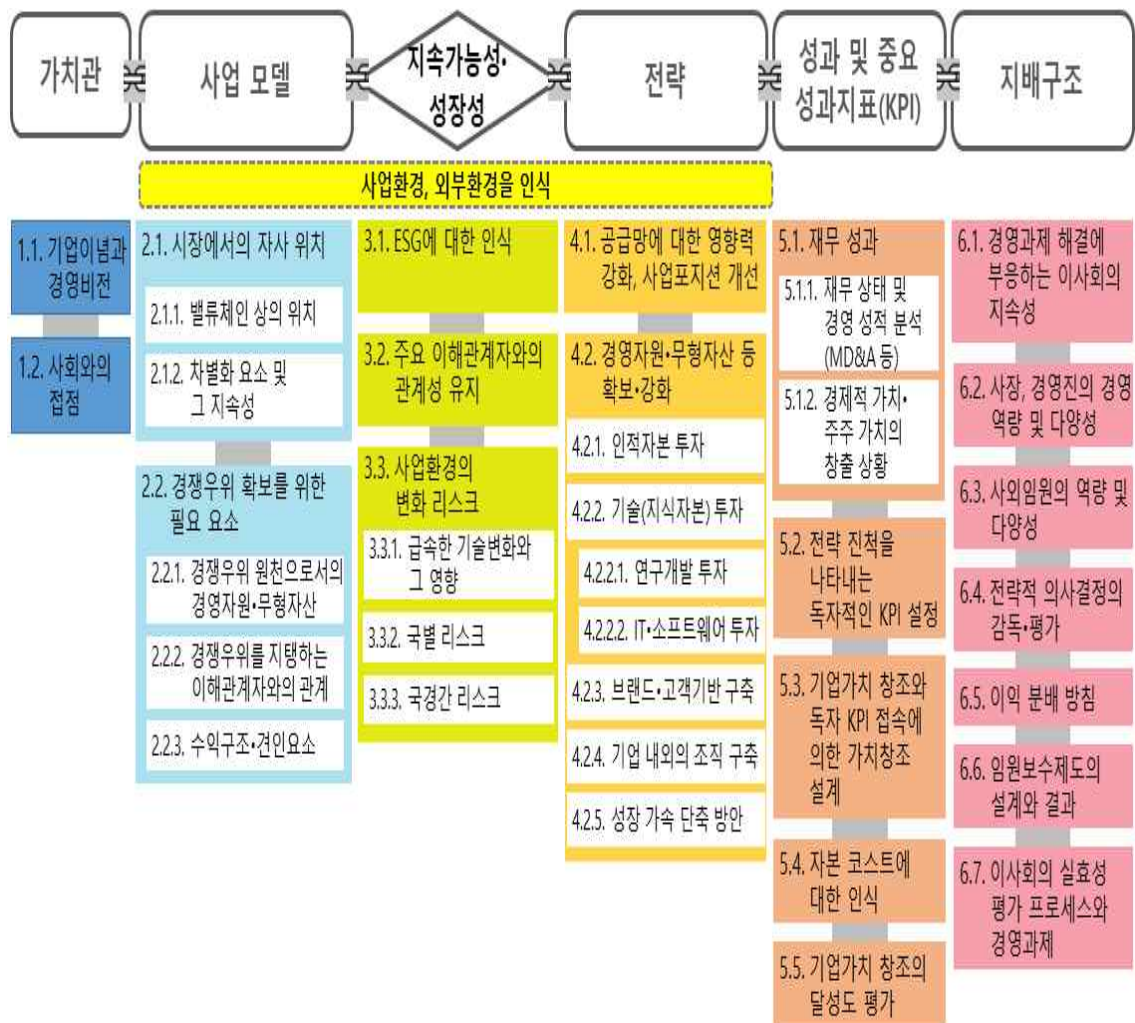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정부는 거버넌스 개혁에서 자본생산성(ROE)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추진
- “일본기업의 중장기 수익성·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여 경영자 마인드를 변혁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본생산성(ROE) 달성 등을 수치 목표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 이겨내는 공격적인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일본부흥전략 개정 2014」)
 -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독립 사외이사 1/3 이상 선임, 지명·보수위원회의 설치 요청과 함께 지속가능성 대응 차원에서 TCFD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기후변화 공시의 양적·질적 충실 요청(「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안 2021년」)

□ (경제산업성) 가치협력창조(協創) 가이드스(2017년)

- 가치협력창조 가이드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으로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중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과 투자자 간 대화와 정보공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틀(‘공통언어’)을 제시한 것임.
- 경제산업성은 이 가이드스가 기업경영자 및 투자자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진화하는 공통언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
 - － (기업경영자에 대한 안내서) 기업경영자가 자신의 경영이념과 비즈니스모델, 전략, 지배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서*
 - * 가이드스의 내용은 제도적인 의무 공시나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제반 원칙,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임의공시 등과 별개로 추가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안내서를 기업이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전체상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후, 각각의 공시 요구나 필요한 대화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
 - － (투자자에 대한 안내서) 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 판단과 수탁책임(stewardship) 활동에 유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
 - *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이 가이드스 항목을 일방적으로 공시·설명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정보·인식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이 안내서를 참조하여 기업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투자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기대
 - － (공통언어로서의 활용 및 진화) 이 가이드스가 기업의 정보공시와 투자자와의 대화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언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실무를 통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이 가이드는 기업-투자자 간 충실한 대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향후 기업의 우수사례나 투자자의 평가실태 등을 파악·분석하면서, 보다 좋은 내용과 활용 방법을 모색·재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이 가이드의 전체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업의 경영이념과 사업모델, 전략, 지배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상호 이해하고 건설적 대화를 하기 위한 틀로 표현 가능

<그림> 「가치협력창조 가이드」의 전체상



자료: 経済産業省, 2017. 「価値協創のための統合的開示・対話ガイダンス - ESG・非財務情報と無形資産投資 -」 (価値協創ガイダンス).

□ (경제산업성) 「기업지배구조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CGS 가이드라인)」 개정(2018년)의 주요 내용⁵⁾

- 2017.3월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대응 심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 (CGS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으며, 경제산업성 내 CGS연구회(제2기)의 제언에 따라 2018.9월 개정 지침을 발표

* CGS 가이드라인 역시 「日本再興戰略 2016」에 근거해 책정됐는데,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기업 경영’ 촉진을 위해 실효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의한 기업가치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침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 개정 CGS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사장·CEO 지명과 후계자 계획) 사장·CEO의 지명과 후계자 계획에 관한 기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그 중요성과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선진적 기업의 대응사례를 소개
- －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의 비업무 집행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것의 의의와 이를 위한 환경 정비 필요성을 추가
- － (지명위원회·보수위원회의 활용) 사외임원이 적어도 과반수이어야 하고, 사외임원과 그 이외 위원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사외임원으로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추가
- － (사외이사 활용) 사외이사가 자질·배경을 가져야 하고, 시간·노력을 투입하며, 다양한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
- － (상담역·고문) 퇴임사장·CEO경험자를 회사의 상담역·고문으로 두는 경우 그 인원수, 역할, 처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추가

5) 経済産業省. 2018.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CGSガイドライン).

□ (경제산업성) 「사외이사 역할·대응에 관한 실무지침(사외이사 가이드라인)」 (2020년)의 주요 내용⁶⁾

- (배경·취지) 「일본재흥전략」 (2013년)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성장전략의 중요 사항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사외이사의 수 및 이사회에서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
 - － 경제산업성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 － 이에 경제산업성은 사외이사의 활동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도쿄증권거래소 1부·2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19.11월~ 2020.1월)하고 동시에 사외이사 42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해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수집·정리
 - －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5월부터 기업지배구조시스템 연구회(제2기)를 재개
 - － 동 연구회는 사외이사의 역할, 구체적인 대응, 회사 측의 지원체제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여 「사외이사의 역할·대응에 관한 실무지침」을 책정
- (지침의 구성) 총 3장으로 구성
 - － 제1장: 사외이사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점을 정리
 - － 제2장: 사외이사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이사회와 관계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
 - － 제3장: 사외이사의 역할 완수를 위해 회사 측이 구축해야 할 지원체제에 대해 정리

6) 経済産業省. 2020.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

□ (금융청)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책정(2014년)

-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그 내용의 예시로 사회, 환경문제에 관련된 위험과 거버넌스를 포함
- 개정(2017년)판에서는 'ESG 요소'라는 용어와 함께 위험 이외에 수익 기회에 대한 대응을 명시적으로 제시
- 이에 기관투자자에 의한 책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금융청) 「기업지배구조 코드 및 투자자기업간 대화 가이드라인」 개정안(2021년)의 주요 내용⁷⁾

- 금융청은 21.4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팔로우업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를 공표했는데,⁸⁾ 개정의 주된 네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이사회 기능 발휘
 - －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시장⁹⁾ 상장기업은 독립 사외이사를 1/3 이상 선임(필요할 경우 과반수 선임 검토를 중용)¹⁰⁾
 - －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은 독립

7) 金融庁. 2021.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投資家と企業の対話ガイドラインの改訂について」の公表について」.

8) 이 공표에 따르면, 금융청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팔로우업 회의'의 제언 이외에도 각계의 제언(public comments)을 받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하고, 이후 금융청이 대화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9) 도쿄증권거래소는 현재의 1부(시가총액 250억 엔 이상 우량사 중심), 2부(중견기업 전용), 자스닥(신흥기업), 마더스(신흥기업)의 4개 시장에서 2022년 4월부터는 프라임(유통주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 35% 이상; 글로벌한 기업), 스탠더드(중견기업용), 그로스(신흥기업용)의 3개 시장 체제로 바뀔 예정임. 『時事通信』. 2021. 「企業の対応加速 新市場「プライム」基準厳格化―来年4月に東証再編」. (5月5日).

10) 특히 프라임시장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유치를 목표로 이사회 기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함.

사외이사를 위원회의 과반수 선임)

- 경영전략에 상응하는 이사회 역량(지식·경험·능력)과 각 이사의 역량과의 대응관계 공표
- 타사 경영경험이 있는 인재를 독립 사외이사로 선임

○ 기업 핵심인력의 다양성 확보

- 관리직의 다양성 확보(여성, 외국인, 경력직 등용)에 대한 개념과 측정가능한 자율목표 설정
-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방침 및 사내 환경정비 방침을 추진 상황과 함께 공표

○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에의 대응

-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은 TCFD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공시의 질과 양을 내실화할 필요
-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 대응 활동을 공시

○ 상기 이외의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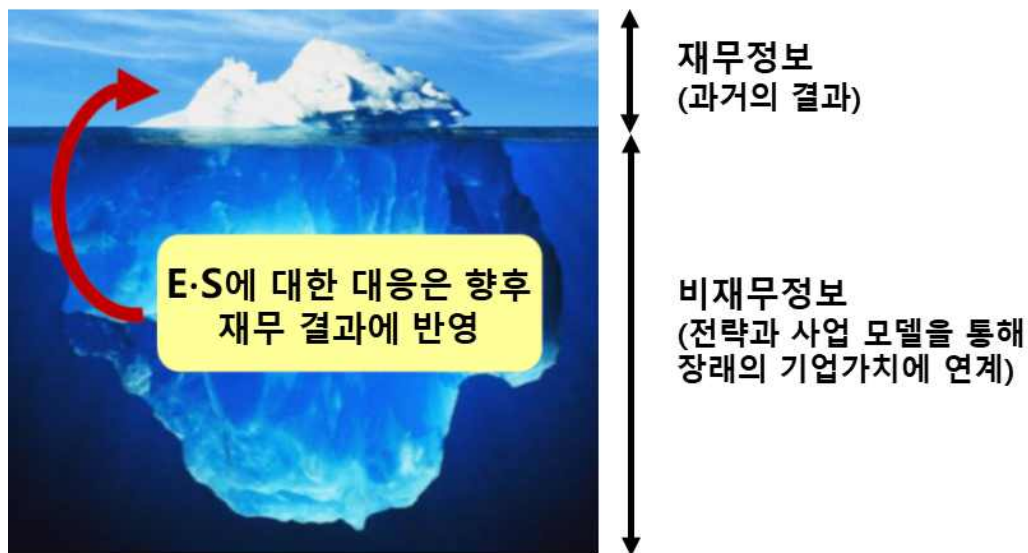
- 프라임시장에 상장하는 '자회사'는 독립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 또는 이익상충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은 전자적인 의결권 행사 플랫폼 이용 및 영문 공시 촉진

□ (전망) 향후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에서는 E·S와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을 G에 내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ROE 향상과 지속가능성(E·S 대응 방침 등)의 확립, 즉 재무 및 비재무 측면의 양립을 통한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체제의 구축이 필요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ROE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E·S의 관점을 위험/기회로서 경영에 어떻게 포함시키고, 제어하는가에 대한 규율(G) 의식을 더하는 것이 필요¹¹⁾

<그림>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관련성



자료: 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2018. 「ESGと企業経営について」.

11) 경제산업성의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투자(ESG·무형자산투자) 연구회'를 이끌었던 이토 교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 자본 비용을 의식한 자본생산성(ROE) 향상과 ESG에의 지속적 배려가 결합된 'ROESG'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음(2018년 5월, '통합보고.ESG 대화포럼'). 経済産業省. 2018. 「統合報告・ESG対話フォーラム報告資料」.

II

일본 기업의 ESG 대응 전략 및 사례 분석

1

일본 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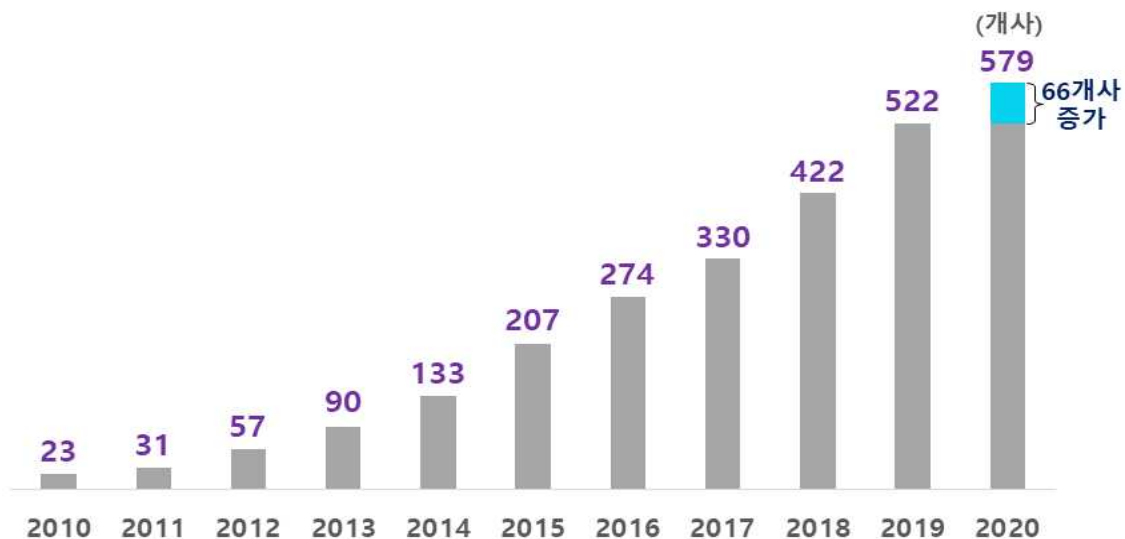
가. 통합보고서의 발행 - 재무 및 비재무 정보 공시

□ ESG 등 비재무 정보를 포함한 통합보고서를 발행하는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글로벌한 ESG 중시 및 ESG투자 확대, 일본 정부의 ESG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KPMG에 따르면 통합보고서의 발행 기업 수는 2020년 579개사(전년대비 66개사↑)로, 2010년(23개사)과 비교해 25배 증가¹²⁾

<그림> 통합보고서 발행 기업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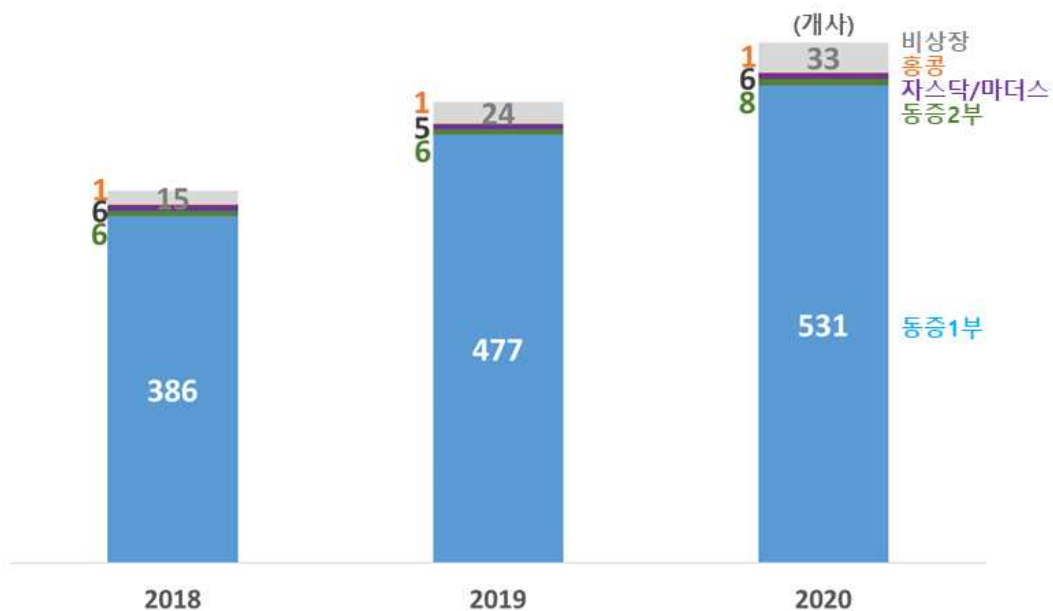


자료: KPMG, 2021. 「日本企業の統合報告に関する調査2020」.

12) KPMG(2021)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업은 「自己表明型統合レポート発行企業等リスト2020年版」의 일본 기업 579개사와 日経225 기업 225개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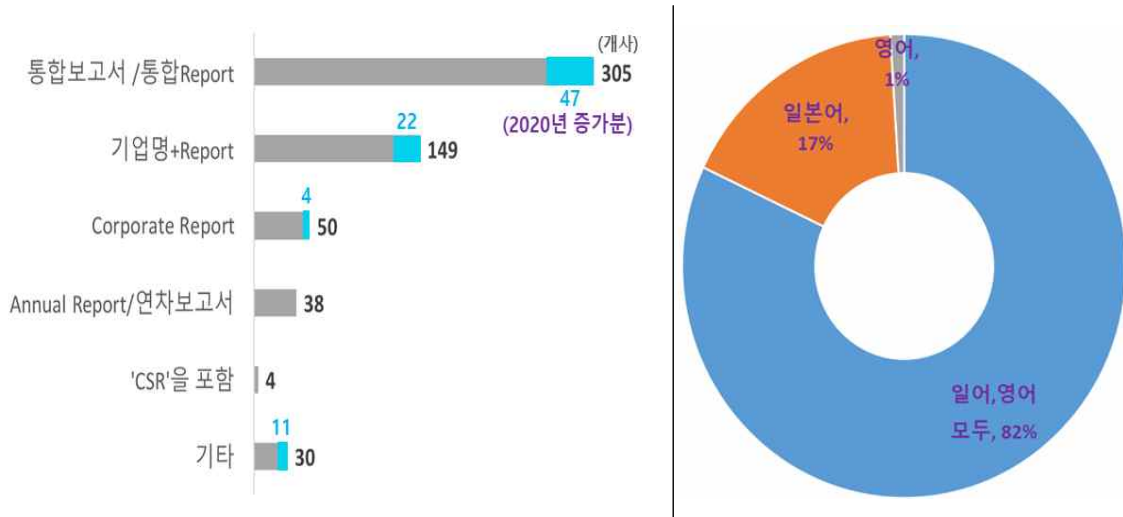
- 통합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의 상장시장 현황을 보면,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의 기업이 531개사(전체의 92%)로 발행수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견인
- * 이 수치(531개사)는 일본 연금기금(GPIF)의 조사 결과(535개사)와 거의 일치. GPIF도 매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십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기업 681개사 중 78.5%(535개사)가 통합보고서 등을 통해 ESG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통합보고서 발행 기업의 상장시장 현황



자료: KPMG. 2021. 「日本企業の統合報告に関する調査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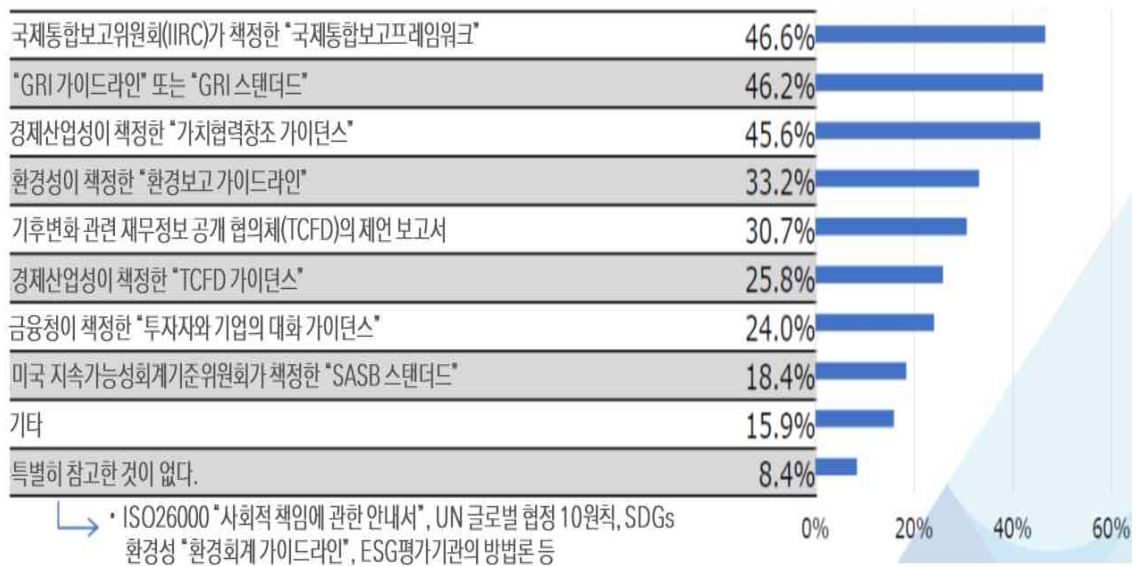
- 정보공시 보고서의 명칭은 2020년 기준 ‘통합보고서/통합 Report’가 305개사(전년 대비 47개사 증가)로 최대, 언어는 영어와 영어의 두 개 버전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82%였음.

<그림> 통합보고서의 명칭 및 언어 현황(2020년)

자료: KPMG. 2021. 「日本企業の統合報告に関する調査2020」.

나. ESG정보 공시 참고 기준 및 코로나 사태의 영향

□ 일본 기업은 ESG정보 공시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참고로 활용

<그림> 일본 기업이 ESG 등 비재무정보 공개 시 참고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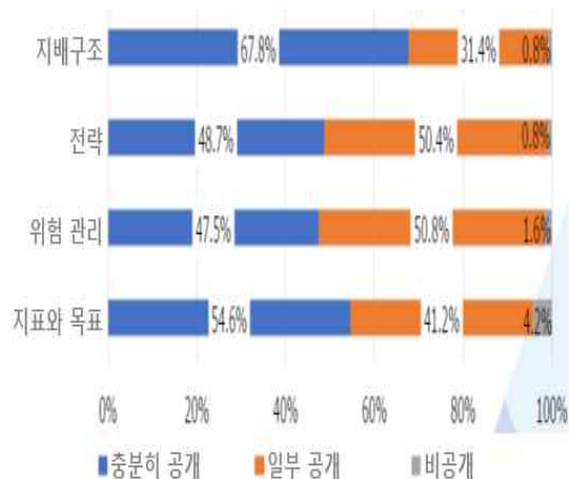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 국제적으로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국제통합보고프레임워크」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국제지속가능경영표준 가이드라인인 「GRI 가이드라인&스탠더드」를 참조
 - 국내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의 「가치협력창조 가이드스」를 주요하게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TCFD에 대해 지지(찬성)하는 기업은 31%(208개사)이며, 이 중 TCFD에 따라 정보공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7%(139개사)이었음.
- 90% 이상의 기업이 4개 항목(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목표) 모두에 대해 충분히 혹은 일부 공시했다고 응답
 - 특히 지배구조 항목의 경우 67.8%의 기업이 충분히 공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TCFD 지지 여부



<그림> TCFD 4개 항목 공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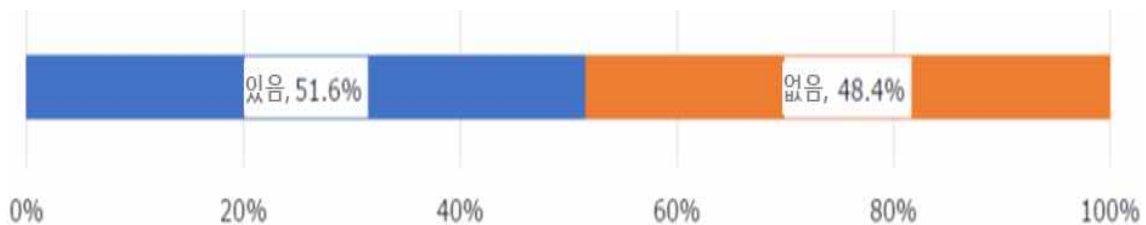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51.6%의 기업이 자사의 ESG 대응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함.

-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안전이나 근로방식 개혁(재택근무, 업무의 디지털화 등) 대책의 변화, 포스트코로나의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신제품(지속가능성 공헌 제품) 개발 착수, 투자자와의 직접 면담 감소(zoom, 텔레콘 활용) 등이 있었음.

<그림> 코로나 사태로 인한 ESG 대응의 변화 여부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다. 기업의 ESG 대응에 대한 인식과 통합보고서의 개선 방향

□ 일본 기업은 ESG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장래 자사의 이익 향상과 함께 미래 이익의 안정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조사¹³⁾

- ESG에의 대응이 주주 이익 감소가 아니라 장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ESG 대응이 이해관계자(종업원, 소비자,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

* 설문조사 대상: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3,829개사 → 응답기업 263개사 → 분석 활용 253개사 (설문조사 시기: 2019년 8월)

13) 佐々木隆文, 花枝英樹. 2021. 「日本企業のESGに対する意識調査」.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21-J-004).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RIETI).

○ ESG 대응과 관련한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국내기관투자자> 종업원> 거래처> 지역사회> 개인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ESG평가기관 > 소비자> 정부> NGO·NPO의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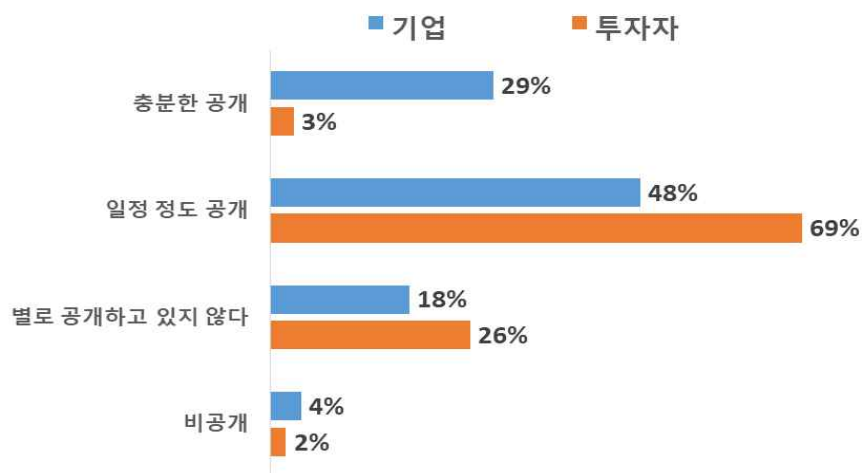
－ 국내 기관투자자를 해외 기관투자자보다 높게 의식하는 것은 ESG보고서를 일본어로만 발간하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KPMG(2021)에서는 통합보고서의 언어가 일본어 99%, 일어 및 영어 모두 82%로 나타남

□ 비재무정보 공시의 충분성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SG 대응 관련 정보공시의 정도에 대해 기업은 29%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투자자는 3%에 불과¹⁴⁾하였음.

<그림> ESG 대응 관련 정보공시의 충분성 여부(2020년)



자료: 一般社団法人生命保険協会. 2021. 「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を通じた「株式市場の活性化」と「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14) 이러한 결과는 경제산업성이 2019년 말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과 거의 일치함. 일본 내 국내의 투자자 85.4%가 ESG투자 시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시 불충분'을 지적하였음. 経済産業省. 2019. 「ESG投資に関する運用機関向けアンケート調査」. p. 7.

- ESG 투자판단과 대화(engagement)와 관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불충분’이 지적됨.
- 이 외에도 ‘ESG 투자의 적절한 평가방법이 미확립’, ‘ESG투자에 관계된 체제가 불충분’, ‘ESG정보와 기업의 경영전략 중장기계획이 미연계’, ‘기업공시 정보의 업계 내 비교 곤란’ 등이 지적되었음.
- 이타즈(2020)¹⁵⁾는 각 기업의 위험과 불확실성 요인 중에는 재정 상태,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고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적합한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언함.
- KPMG(2021)는 기업별로 고유한 비재무정보 제공을 통한 차별성 강화 등 보고서 내용 작성과 관련한 개선 방향을 제언¹⁶⁾
- 2020년 579개 일본 기업의 통합보고서를 조사하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과제(materiality)¹⁷⁾를 정리
- 통합보고서의 지속 발행에 따른 내용의 충실화, 장기전략의 설명 증가 등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자사의 장래상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통합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
- 첫째, 기업의 가치창조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자체적

15) 板津直孝. 2020. 「非財務情報開示の現状の課題と内閣府令の改正」. 『野村サステナビリティクォーターリー』. 野村資本市場研究所. p. 169.

16) KPMG. 2021. 「日本企業の統合報告に関する調査2020」. pp. 5~6.

17) 우리나라에서는 materiality를 ‘중요성’으로 표현하고 있음.

으로 직접 작성하는 통합보고서의 발행 의의를 재검토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과제를 정리할 필요

- 위험과 기회, 전략과 자원배분, 사업모델, 거버넌스 요소별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요과제에 기초하여 기재 내용을 정리하고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특정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통합보고서의 장점을 살려 기업의 가치창조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요구
- 둘째, 향후 통합보고서는 기업의 존재 의의(purpose)에 기반하여 가치창조를 위한 전체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적절한 비재무보고를 포함하여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함.
- 조사 대상의 통합보고서는 일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제외하면 어느 기업에라도 통용될 수 있는 정성적인 내용의 기재가 많았다는 점에서 통합보고서 간에 차별성이 약했음.
- 정량적인 정보가 뒷받침된 비재무정보를 자회사까지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통합보고서가 기업 고유의 가치창조 스토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글상자> 「TCFD 가이드선」에 따른 기업의 정보 공시 사례

- 일본 기업이 TCFD 권고안에 의거해 자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바, 일본 TCFD컨소시엄은 이러한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2020.7월 「TCFD 가이드선 2.0 사례집」을 발표
- 「TCFD 가이드선 2.0 사례집」은 「TCFD 권고안」 4개 항목에 기타 항

목을 추가하여 각 항목별로 일본 기업의 정보공시 사례 47건을 제시¹⁸⁾

- 2018.12월 경제산업성은「TCFD 권고안」의 해설서인「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TCFD 가이드라인」)을 책정
- 2020.7월 TCFD컨소시엄은 경제산업성이 작성한「TCFD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TCFD 가이드라인 2.0」을 사례집과 함께 발표

<표> 「TCFD 가이드라인 2.0 사례집」의 일본 기업 사례 현황

구분		일본 기업의 적용 사례
① 지배구조		카오, 인팩스, 미쓰비시상사, 세키스이화학, 미즈호파이낸셜그룹
② 전략	단중장기 시간축	인팩스, 오지홀딩스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이토추상사, NEC, 다이킨공업, 마루이그룹, 도쿄해상홀딩스
	R&D 대응	스미토모화학, 도요타자동차
	시나리오 분석	기린그룹,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일본철강연맹, 미쓰비시상사, JFE홀딩스, 인팩스, 도요타자동차, 도쿄전력홀딩스, 세키스이화학, 도큐부동산홀딩스
	회복성	세키스이하우스그룹
	포트폴리오 시나리오	노무라자산관리, GPIF
③ 위험 관리		미쓰비시상사, 카오,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기린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인팩스
④ 지표와 목표		스미토모화학,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아사히그룹홀딩스, 노무라자산관리, 이데미츠홍산
⑤ 기타		니혼제철, 미쓰비시상사, 기린그룹, 다이킨공업, 아지노모토그룹, 니혼생명, 다이와하우스공업, 히타치그룹

자료: TCFD Consortium. 2020. 「気候関連財務情報開示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事例集」에서 정리.

18) 「TCFD 가이드라인 2.0 사례집」에서는 우수한 정보공시 사례로 일본 기업 47건 이외에 외국기업 28건도 제시됨. 일본 기업 47건은 항목별로 중복된 기업이 있어 기업 수 기준으로는 31개사임. 우수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은 미쓰비시상사와 인팩스(INPEX)로 각각 4건임.

2 일본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미쓰비시상사)

□ 미쓰비시상사¹⁹⁾는 2018년에 마련한 「중기경영전략2021」에서 사업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표명²⁰⁾

- 사회·환경 과제는 위험인 동시에 사업기회라는 인식 아래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가치의 동시 창출*이 자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파악

* 사업을 통한 사회·환경 가치 창출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CSR)과는 구분

-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중요과제(materiality)*를 설정·대응하여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도 공헌하고자 함.

* 7대 중요과제: 저탄소사회 이행, 지속가능한 조달·공급 실현, 지역 과제 대응과 해결책 제공, 차세대사업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 자연환경 보전, 지역·커뮤니티와의 공생, 매력적인 직장 실현

- TCFD* 기준에 따른 정보공시 확충, 정부·업계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대화 실시, UN 글로벌 콤팩트 지지(2010년), WBCSD** 참가 등을 추진

* 미쓰비시상사의 지속가능성·CSR부장은 2018년 TCFD멤버로 참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WBCSD)에 1995년부터 참가. 2016년부터 직원을 파견해 기업의 SDGs 대응 관련 정보교환 추진

19) 미쓰비시상사는 전세계 90개국에 거점이 있으며, 자회사 1,319개사, 관련회사 466개사 등 연결대상 회사가 전체 1,785개사임. 종업원 수는 자회사 포함 86,098명임. 사업부문별로는 천연가스그룹, 종합소재그룹, 석유·화학솔루션그룹, 금속자원그룹, 산업인프라그룹, 자동차·모빌리티그룹, 식품산업그룹, 식품산업그룹, 컨슈머산업그룹, 전력솔루션그룹, 복합도시개발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三菱商事 홈페이지, 「会社概要」.)

20)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 추진 체제: 지속가능성은 이사담당임원(지속가능성 및 CSR)이 관장하며, 지속가능성·CSR부서가 방참·시책을 기획·입안. 연간 2회를 목표로 지속가능성·CSR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사장 및 이사회에 부의·보고되는 체제를 구축
- ‘지속가능성 자문위원회’ 운영: NGO, 국제기구, ESG 투자 분야 등 각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시점을 대표하는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Sustainability Advisory Committee」를 담당임원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고, 지속가능성 대응에 대해 조언을 받음.

□ 미쓰비시상사는 2017년부터 ESG 통합보고서를 발표

- 2017~19년에 ESG 정보를 포함한 통합 보고서, 홈페이지 웹 등으로 공개(「ESG데이터북」)했으며, 2020년부터는 기존 ESG 내용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 부분을 확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행
- ESG 보고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ESG 항목별로 정리함으로써 정보의 명료성을 높였으며, 주로 ESG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조하는 보고서로 활용

<표> 미쓰비시상사의 ESG에 관한 기재 항목

구분	내용
환경	기후변화, 환경관리, 수자원, 생물다양성, 오염방지, 자원 유효 활용
사회	인권, 노동관행, 다양성 관리, 노동안전위생, 인력개발, 고객 책임, 커뮤니티, 공급망(Supply-chain) 관리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법령·규정·규범 준수(compliance), 위험 관리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가. 환경 분야

① 기후변화

① 방침

-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도전해야 할 중요한 경영 과제의 하나로 인식
 - 에너지 수요 충족의 사명을 완수하고 SDGs와 파리협정(2℃ 목표 포함)에서 나타난 국제적인 목표 달성에의 공헌을 위해 미쓰비시그룹 각사 간 제휴를 바탕으로 정부·업계단체 등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함.
 - 또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TCFD에 따른 정보 공시를 확대함.

② 대응

- TCFD 권고안 관련 성장기회 활용 및 위험 관리 대응
 - 미쓰비시상사는 정보공개지침인 TCFD 권고안을 자사의 기후 변화 대응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음.
 -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본방침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장실의 심의·결정과 이사회 보고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정비
 - 기후변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뿐만 아니라 2030년 이후의 중장기 관점에서 기회

와 위험 요인을 검토

- 대응 현황: (2016년) 기후변화 대응 논의 시작 → (2017년) 기후변화 대응방침 수립 → (2018년) TCFD 대응 로드맵 작성 → (2019년)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상세 논의 시작 → (2020년) 이행 위험 및 기회 분석의 계속 실시. 물리적 위험 분석에 착수

<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구분		주요 내용
이행 위험 및 기회	규제	-저탄소·탈탄소 제품/서비스 보급 보조 -탄소가격제와 각종 규제 확대에 따른 조업/설비 비용 증가
	기술	-신재생에너지, EV 등 신기술, 대체상품 개발/보급을 통한 신사업 기회 증가 -기존 기술에 의거한 제품/서비스의 진부화
	시장	-화석연료 관련 제품/서비스 및 저탄소 제품/서비스 수요 증감
물리적 위험	기상이변 증가	-가뭄·홍수 등이 사업에 미치는 위험
	기후 변화	-기온상승 등이 사업에 미치는 위험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사업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분	사업환경 인식 및 대응 방침
발전 (화석연료)	- 저·탈탄소화의 세계적 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제약·규제 강화에 따른 화석연료 유래의 화력발전 사업의 비용 구조의 변화와 전력공급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화가 전망 -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이미 개발에 착수한 안전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 2050년까지는 이 분야의 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방침. 석탄 화력발전 용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1/3 규모로 축소
공업원료 석탄 (原料炭)	- 철강 수요의 지속 증가, 탄소가격제 도입, CO₂ 발생량이 적은 수소환원제철법에 의한 철강생산의 비율 증가 등이 예측 - 환경 인허가의 취득 난이도 상승과 경제성 악화에 따라 신규

	탄광 투자가 감소한 결과, 공급도 감소할 전망 - 고품위 원료탄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원료탄 사업의 우위성이 일정 정도 유지될 전망으로, 신기술과 각국 정책 진전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원료탄 자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천연가스	- 2°C시나리오 하에서 전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2030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전망. 수요 증가에 부응한 신규 프로젝트 참가와 비용 경쟁력이 높은 사업 업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탄소세 도입 등 각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대형 수송 및 산업용 열원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의 기술 동향을 감안한 마케팅과 사업구상을 추진할 예정
자동차	- 동남아는 내연기관 차량 수요 증가가 전망, 중국과 유럽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 동남아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유럽(영국,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동남아(인도네시아)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급확대 추진
선박	- 기간수송 인프라인 해운의 수요는 대폭 증가가 전망. 조선업계에서는 중유 연료를 사용하는 구형선이 아닌 차세대 연료(바이오연료, 수소연료 등)를 이용한 신형선 개발 및 건조, 차세대 연료공급망 구축, 항만 인프라 정비 필요 등이 예상 - 차세대 연료로의 전환 동향, 신조선 건조 가격 및 운임 동향, 공급체제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선진 선박 개발·도입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발전 (재생에너지)	- 2°C시나리오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요 증가, 전력사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축전지, 전기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를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등이 전망 -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에 부응해 전력 밸류 체인에서의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도모.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CO₂배출 제로를 위한 기술동향 등을 파악해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을 도모
구리(銅)	- 전기차, 재생에너지발전 보급 가속화로 구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공급 측면에서는 확장·신규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광산·프로젝트가 많아 향후 구리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구리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칠레·페루의 구리광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진행

주: 표 내의 대응 방침은 미쓰비시상사가 IEA 등 국제기구의 2°C시나리오, TCFD 권고안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 투융자 심사 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ESG 측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융자위원회에 지속가능성·CSR부장이 참여
 - － 기후변화 관련 이행 위험·기회와 물리적 위험의 관점에서 CO2 배출량 등의 정량 데이터와 각국의 정책, 산업 동향을 근거로 심의·검토를 실시

□ 저탄소·탈탄소화 사업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저탄소·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분야의 변혁(Energy Transformation)에의 도전 및 그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의 포트폴리오 진화를 추진
-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환경과제에의 적절한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사명의 양립을 도모

□ 온실가스 감축 활동

- 그룹 연결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대상 사업회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응
 - － 환경관리시스템(EMS)을 활용해 부문·그룹별로 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배출량 감축 대응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축 대응방안의 재검토, 모범사례(good practice) 공유 등을 실시
 - － 2020년도에는 환경성과조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정밀도 향상과 시기적절한 파악을 위해 노력

□ 외부와의 협력

-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의 정부와 게이단련(経団連), 일본무역회 등의 업계가 에 적극 참가하고, 개별 의견 교환 및 면담 등을 실시
- 2003년도부터 기업의 기후변화 관리를 평가하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환경경영 정보를 공개

③ 성과

□ 전체 미쓰비시 그룹의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2016~18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증가로 전환

- * (지표 목표) 온실가스는 그룹 연결기준으로 2030년까지 총자산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2016년 대비), 재생에너지는 발전사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 30%(발전량 기준)로 설정

<표> 미쓰비시 그룹의 환경 데이터(연결 기준)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CO ₂ 배출량 (단위: 천t-CO ₂)	10,019	7,963	7,642	9,437*
총자산당 CO ₂ 배출량 (단위: 백만t-CO ₂ /조엔)	0.80	0.62	0.57	0.68
에너지 사용량 (단위: GJ)	92,607,818	70,649,565	71,669,148	106,075,971*
전기사용량 (단위: MWh)	5,271,214	4,266,241	4,268,734	4,399,057*

주: * 제3자 기업(딜로이트 토마스 서스테이너빌리티(주))이 검증한 수치임.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 미쓰비시 그룹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전력 솔루션 그룹과 금속자원 그룹의 높은 배출량을 기록

-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금속자원 그룹이 크게 감축
- 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전력솔루션 그룹은 오히려 급증

<표> 미쓰비시 그룹별 CO2 배출량 추이

(단위: 천t-CO₂e)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천연가스 그룹	358	260	263	245
종합소재 그룹	95	128	130	149
석유·화학 그룹	383	368	223	165
금속자원 그룹	5,071	2,889	2,940	2,872
산업인프라 그룹	13	14	14	83
자동차·모빌리티 그룹	16	17	16	20
식품산업 그룹	1,106	1,107	1,160	1,195
컨슈머 산업 그룹	1,299	1,355	1,392	1,523
전력 솔루션 그룹	1,624	1,762	1,486	3,168
복합도시개발 그룹	48	48	7	6
Corporate Staff 부문	19	17	12	11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② 자원 유효 활용

① 방침

□ 미쓰비시상사는 환경현장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에너지, 광물, 식료, 물 등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재이용의 강화와 효율적인 사용, 생태계에의 부하·영향을 저감하는 사업 활동, 재생가능한 범위에서의 어획 등 각 사업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추진

② 대응

□ 재활용·순환형 비즈니스의 대응 - 중앙화학(주)

- 미쓰비시상사의 자회사인 중앙화학(주)에서는 1990년부터 슈퍼와 생활협동조합의 매장에서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 식품용기의 자율적 회수를 실시
 - － 이는 열분해를 통한 기초화학원료, 파쇄·고형화를 통한 대체연료 등 리사이클 제품으로 재활용
- 이외에 재생 PET 원료 이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리작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내열 소재 연구 등 폐기물 감축, 원재료 사용량 절감 등을 추진
- 2006년부터 5년마다 환경부하 감축 계획을 책정

□ 재활용·순환형 비즈니스의 대응 - 일본농산공업(주)

- 미쓰비시상사의 자회사인 일본농산공업(주)에서는 식품제조 부산물인 에코피드를 배합사료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식품재활용률 제고, 사료·식료자급률 개선에 기여

□ 재활용·순환형 비즈니스의 대응 - 축산사업

- 미쓰비시상사의 자회사인 (주)재판팜에서는 폐기물(소주 찌꺼기)을 재활용하여 사료로 개발함으로써 폐기물 억제와 CO2 감축 실현

③ 성과

□ 2019년 식품 폐기물의 재활용(recycle)량이 크게 증가, 본사 빌딩 재활용률은 100%로 'Zero Emission Office' 목표를 달성

- 전체 폐기물 배출량은 산업 폐기물의 배출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
- 미쓰비시상사 본사 빌딩의 경우 폐기물은 전년도 대비 1% 감축, 재활용률은 폐기물량의 95% 이상 재생처리가 목표임.

<표> 재활용량 성과 추이(단체: 본사, 국내 6개 지사, 각 지점 기준)

(단위: kg)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본사 빌딩 재활용량	554,600	576,834	487,080
식품 폐기물 재활용량	239,100	260,270	345,600
용기포장 폐기물 재활용량*	28,096	25,796	22,391

주: 「용기포장재활용법」에 따른 소비자배출 용기포장 폐기물의 재상품화 수량임.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표> 폐기물 배출량 성과 추이(연결 기준)

(단위: 천톤)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일반 폐기물	221	214	192
산업 폐기물	244	226	286
합계	465	440	478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나. 사회 분야

1 다양성 관리

① 방침

□ 미쓰비시상사는 다양성 관리 의의를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두고 있음.

- (목표) 우수한 인재 확보 및 활약 촉진, 새로운 관점과 발상을 경영·사업창조와 지역전개에 활용, 다양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
- (구체적인 대응)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한 근로방식 재검토,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 촉진, 육아돌봄과의 양립 지원, 여성 활약 추진, 시니어의 활약 지원, 장애인의 능력 극대화, 해외 인력의 수용 촉진, 성소수자(LGBT) 직원 배려

② 대응

□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돌봄(간병) 제도 확충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촉진해 직원이 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조성을 진행
 - 여성의 육아 이후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소 확보 및 인사부 내 육아컨시어지(보육시설 등 정보제공) 설치, 일-육아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무시간의 설정, 배우자 전근에 따른 퇴직 시의 재고용 등 도입

- 일·돌봄(간병) 양립을 위해 돌봄 휴가, 유연근무, 시차 근무, 돌봄 휴직 등의 제도를 확충. 이외에 ‘일-돌봄 양립 지원 세미나’ 개최, ‘돌봄 상담 창구’ 설치, ‘일-돌봄 양립 지원 핸드북’ 배포 등을 추진

□ 여성 활약 촉진

- 여성의 활약 촉진을 위해 5년 단위 행동계획을 책정
 - (목표) 종합직 채용에서 여성 비중 향상, 여성의 경력 제고 지원, 2020년도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10% 이상으로 개선, 남성의 육아제도 이용률=100% 달성, 연수설명회 확대 등

□ 시니어 활약 지원

- 2006년 「재고용 계약사원 제도」 도입 이외에 시니어 인력의 활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캐리어 디자인실의 기능(개별 상담, 각종 정보 및 연수/자기계발 제공 등)을 확충

□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미쓰비시상사의 특례 자회사인 미쓰비시상사태양(주)*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취업 기회 제공
 - * 1983년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IT회사

□ 해외 인력 수용 촉진

-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체류기간 갱신 허가신청 절차, 주택 임대, 연금, 의료 관련 정보를 인트라넷에 게재하여 일본내 생활을 지원

□ 성소수자(LGBT) 직원에 대한 배려

-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사내외 상담창구 설치, LGBT 관련 이해 촉진 세미나 실시, LGBT 관련 복리후생 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대책을 추진

③ 성과

□ 2020년 여성관리직 비율 목표치(10.0%)를 2018년에 이미 달성

- 2017~19년 장애인 고용률은 일본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인 2.2%를 초과 달성

<표> 다양성 관리 데이터 현황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배우자 출산휴가 취득자 수		83	96	98
육아휴직 취득률(%)	남성	6.3	7.1	9.3
	여성	90.7	93.9	96.6
육아휴직 후 계속 취업률(%)	남성	66.7	100.0	84.6
	여성	97.3	96.3	95.9
육아컨시어지 상담건수		141	116	93
돌봄상담창구 상담건수		45	45	48
여성관리직 비율(%)		9.4	10.4	11.0
장애인 고용률(%)		2.48	2.63	2.69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② 공급망(supply-chain) 관리

① 방침

- 인권, 노동문제, 지구환경의 대응방침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급자(supplier)와 이를 공유
 - 일본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취급하는 미쓰비시상사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노동환경 제공, 종업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존중, 차별 금지, 비인도적 대우 금지, 적절한 노동시간 관리, 적절한 임금 확보, 공정한 거래와 부패방지 철저, 지구환경 배려, 정보 공개의 11개 항목으로 구성
-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목재·종이제품 조달 가이드라인, 팜유 조달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개별 가이드라인을 수립·대응
 - 이외에 그린조달 방침, 동물복지 방침을 책정하고 있음.

② 대응

- 농수산물, 의류 등 인권 및 노동 상황 등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위험이 높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상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파악이 필요
 - 이에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
 - 2020.4월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30개국·지역의 공급업자 4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투융자 심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국제금융공사(IFC)의 가이드라인과 국제협력은행(JBIC)의 「환경사회 배려 확인을 위한 국제협력은행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

□ 종업원 연수: 신입직원 연수, 무역실무 연수 시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자사의 이념, 가이드라인*을 설명

* 미쓰비시상사는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 제5조에 따라 자사 및 공급망에서의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방침을 마련

③ 성과

□ 팜유, 연어양식 및 삼림과 관련된 국제인증 비율과 생산이 증가

<표> RSPO 및 ASC 관련 데이터 추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RSPO 인증	팜유 총 취급량(천톤)	309.3	356.0	295.8
	비율(%)	1.98	4.59	6.31
ASC 인증	ASC인증 생산능력(천톤)	121	148	187
	양식 연어 판매수량(천톤)	158	173	184

주: RSPO 인증은 지속가능한 팜유생산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ASC 인증은 수산양식 관리협의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에서 주관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표> FSC CoC 인증 상품 관련 데이터

	2020년
FSC CoC 인증 등 삼림인증 취득 목질 펠릿	100%

주: FSC CoC는 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가공유통과정 인증을 의미함.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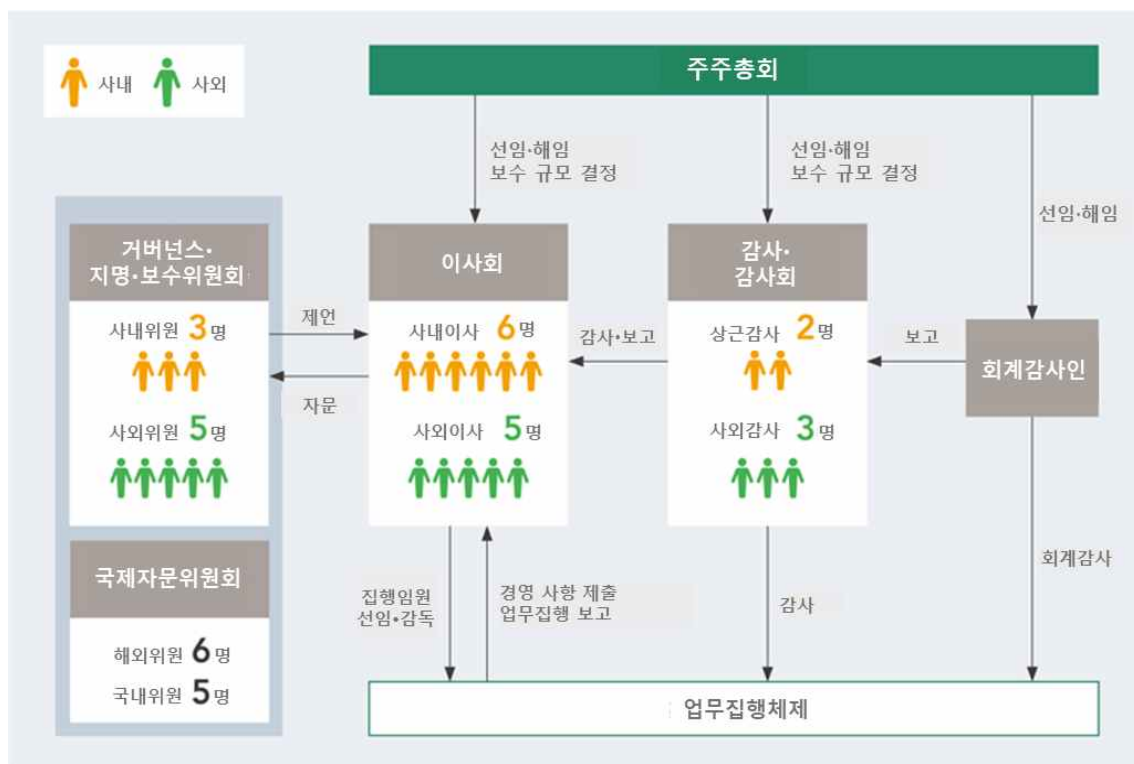
다. 거버넌스 분야

① 기업지배구조

① 방침

- 경영 건전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강화를 경영상의 중요과제로 부각
- 감사역제도를 기초로 독립 임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사외감사의 선임, 사외임원·사외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이사회와 자문기관 설치 등에 의해 경영 감독기능을 강화

<그림> 미쓰비시상사의 기업지배구조 체제



자료: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 이사회는 경영상의 중요사항 결정과 업무집행 감독을 실시
 -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5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45%('21. 4월 기준)
 - 이사회 자문기관으로서 거버넌스·지명·보수위원회, 사장업적평가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를 설치
- 감사회는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 경영집행 상황의 감사를 실시(상근감사 2명, 사외감사 3명으로 구성)

② 대응

- 미쓰비시상사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각 원칙을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홈페이지 게재)에서 상세히 설명

③ 성과

-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정하는 독립 임원의 요건 및 미쓰비시상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외임원 선임기준을 충족
 -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1/3 이상 선임 규정 준수(사외이사 비율 45%)
- 이사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사전설명회, 이사회간담회, 독립사외임원회의, 임직원 대화·교류 실시
 -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주도로 이사회 실효성 평가(매년) 실시

② 법령·규정·규범 준수(Compliance)

① 방침

- 미쓰비시상사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국내외 법령 및 사내 규정의 준수에 더해 일반적인 사회규범에 대해서도 적절히 배려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
 - 미쓰비시상사는 「3강령」을 기업 이념으로 내세우며, 기업을 규율하는 「기업행동지침」과 임직원을 규율하는 「임직원행동규범」을 두고 있음.

② 대응

- 컴플라이언스 실천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제도를 두고 있음.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사안의 보고, 컴플라이언스 시책의 조정·연락 등을 실시
 - 본점 각부문·영업 그룹에 각각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임명해 각 부문·그룹의 특성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시책을 실시

③ 성과

- 전사적 차원에서 사내 연수를 실시
 - 독점금지법, 하청법, 뇌물수수규제, 독직·부패방지, 노무관리

관련 등 개별 테마로 관련 연수를 개최.

－ 2019년도에 국내외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합계 200회 이상 실시, 누계 약 8,000명이 수강

○ 이외에 컴플라이언스 디스커션(2013년부터 직장별로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 컴플라이언스 이슈 논의) 실시, 임직원용 「컴플라이언스 핸드북」 배부

□ 2019년도에 본사, 국내외 거점, 국내외 자회사/관계회사에서의 전체 컴플라이언스 위반 건수는 198건, 그룹 차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은 없었음.

Ⅲ 글로벌 투자기업의 ESG 요구와 일본 기업의 대응

1 글로벌 투자기업의 ESG 요구 내용

- 일본 내 해외투자자의 투자 대상 일본 기업에 대한 ESG 평가 사례는 환경성의 실증사업인 ‘기업과 투자자 등을 위한 ESG 대화 플랫폼’을 통해 파악이 가능
 - 일본 환경성은 기업과 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실증사업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해외투자자 5개사, 일본투자자 18개사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 － 투자자는 기업명, 투자유형 등의 기본요소 이외에 ESG 투자 원칙, ESG 평가 포인트, 기업에 대한 메시지의 세 가지에 대해 응답함.

<그림> 일본 환경성의 기업과 투자자 등을 위한 ESG 대화 플랫폼



주: 그림 중앙의 XBRL은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어임.

자료: 環境省 環境情報開示基盤整備事業. 「環境情報開示基盤整備事業とは」

- 이하에서는 상기 해외투자자 5개사와 일본투자자 중 해외에 본사가 있는 2개사를 추가한 전체 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 해외투자자는 일본 기업의 ESG 대응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 등을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
 - (ESG투자 원칙)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고객자산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
 - 특히 기업의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ESG에의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
 - (ESG평가 포인트) 각 기업의 ESG 과제와 위험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를 바탕으로 ESG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가 각사의 미래 핵심이 되는 사업 기회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
 - 또한 ESG 대응 상황을 공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통합 보고서 등에 포함된 최고 경영진의 메시지에도 주목
- 해외투자자별 세부적인 ESG의 평가 기준 및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음.²¹⁾
- ① 아문디 재팬(Amundi Japan Ltd.)²²⁾
- 업종별로 ESG 기준(총 36개 평가기준)의 선정과 평가를 실시, 최하위 등급인 G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21) 環境省 環境情報開示基盤整備事業 홈페이지 및 일부 해당기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

22) 파리에 본사가 소재한 자산운용사로 일본에 1971년 진출

- (ESG 투자 원칙) 고객자산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
 - 기업의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거버넌스(ESG)에의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있음.
- (ESG 평가 포인트) ESG 분석 팀이 5,5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500개 이상의 일본 기업에 대해 ESG를 평가
 - 평가 결과를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서의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
 - 국제 규범, 중점 과제(materialities)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ESG 기준의 선정과 평가를 실시
 - 업종간 비교에 의해 A~G의 7단계(D가 평균)로 평가. 최하위 등급인 G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 현재 15개의 공통 기준과 업종별로 다른 21개의 기준의 합계 36개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 E(환경)의 경우 CO2 배출, 에너지 효율, 수자원, 생물 다양성, 폐기물 관리(전업종 공통) 외에 업종별로 환경에 공헌하는 사업 대응을 평가
 - ESG 분석은 ESG 외부조사기관 8개사에 의한 ESG 평가나 카본 데이터 등을 활용

② 블랙록 재팬(BlackRock Japan Co., Ltd.)²³⁾

-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간 상호 이해의 촉진을 위해 대화(engagement)²⁴⁾를 가장 중요한 스튜어드십 활동으로 간주

23) 1988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같은 해에 일본에 진출

24)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한 관여, 참여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해 기관투자자가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 (ESG 투자 원칙) 블랙록 재팬의 스튜어드십(수탁책임) 활동에 대한 어프로치는 다음과 같음.
 - － 「스튜어드십 책임 완수를 위한 방침」을 정해 스튜어드십 책임에 대한 입장, 의결권 행사 방침,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침, 이익 상충의 관리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engagement)와 의결권 행사를 실시
 - － 고객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촉진
 - － 기업의 ESG에 대한 정보를 블랙록의 다양한 운영팀에 제공
- (ESG 평가 포인트)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성과에 대해 경쟁 타사와 차별화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지속가능한 것인가를 비교·분석
 - － ESG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만으로는 모든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ESG 정보는 재무·투자 분석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
 - － 이를 위한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ESG와 사업 간 관련성을 중요시

③ AP4²⁵⁾

- 자산관리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일찍부터 저탄소 전략에 투자해왔음.
 - (ESG 투자의 원칙)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자산 관리의 장기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그 수단으로는 경영자와의 직접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을 통한 대화 등이 있음. 野村證券. 『証券用語解説集』(‘エンゲージメント’).

25) 스웨덴의 네 번째 국민연금기금(AP)으로 스톡홀름에 본사 소재

적인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투자 프로세스에서 기후·환경 및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강화

- (ESG 평가 포인트) AP4는 여타 스웨덴 국민연금(AP1, 2, 3)과 함께 2008년부터 스웨덴 이외 지역의 포트폴리오에서 지속가능성의 촉진을 위해 노력
 - AP4는 저탄소 전략에 투자하는 선구자이며, 기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왔음.
 - 2014년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맹(PDC: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의 공동창립자 4명 중 하나였음.
 - 성 평등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
 -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지지하며, 이에 의거하여 행동함.

4] 콤제스트(Comgest Asset Management Japan Ltd.)²⁶⁾

- ESG가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투자 결정 시 ESG통합 접근방식(ESG가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
 - (ESG 투자의 원칙) 기업업의 ESG 조사 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함.
 - 기업투자의 경우 ESG통합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험 및 사업 기회 측면에서 회사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각 기업의 ESG 요소는 Comgest의 자체평가 모델에 통합됨.
 - 기업 경영진의 성실성, 소액주주 존중, 정보 신뢰성과 투명성 등 거버넌스(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

26) 1985년 파리에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 더블린, 홍콩, 도쿄 등에 거점이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ESG 평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평가 등급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금리 할인율을 차등 적용
- (ESG 평가 포인트) Comgest의 ESG 리서치에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ESG 문제에 우선순위를 설정
- 이를 통해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목적으로 리서치 결과를 사용함.
- Comgest의 투자 프로세스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거버넌스 기준을 체계적으로 고려
- Comgest는 기업이 성공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의 기본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으며,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개별 회사의 가치와 관행을 신중하게 고려

<표> 콤제스트의 ESG평가 품질 레벨과 할인율

ESG 품질 레벨		주요 내용	할인율	
			신흥국	선진국
1	ESG 리더 (ESG Leader)	-지속가능성, CSR 등이 완전하게 기업문화에 정착하여, ESG에 따른 투자기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보공시는 양호 -ESG에 관한 기존 위험 경감의 필요성이 존재	-100 bps	-50 bps
2	기본 레벨 (Good Quality)	-기업이 ESG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 ESG 위험은 감소됐지만 추가 경감이 필요. 정보공시는 적절하며 중대한 문제는 거의 없음. -ESG에 따른 투자기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 (no change)	
3	최저 레벨 (Basic Quality)	-ESG 위험을 최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 정적인 경감책을 실시. 중간 정도의 ESG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정보공시는 불충분 -ESG 문제가 존재해 개선이 요구됨.	+150 bps	+100 bps
4	개선 필요 레벨 (Improvement Expected)	-ESG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정보공시는 지극히 불충분 또는 비공개. 위험경감 대책이 없음. -ESG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화(engagement)의 필요성이 높음.	+300 bps	+200 bps

자료: Comgest 홈페이지. 「運用プロセス」.

⑤ 마틴 커리(Martin Currie Investment Management Ltd.)²⁷⁾

□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작업을 투자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

- (ESG 투자 원칙)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는 투자자에게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부여하므로, 기업투자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며 기업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와 같은 중요과제(materi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전통적인 재무 분석과 함께 ESG 분석을 통합하면 투자 대상 기업과 이 회사의 질적 관리 수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강력한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잘 관리되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 － ESG 접근 방식은 좋은 경영진을 식별하고 그들의 관심이 주요 이해 관계자와 소수 투자자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장기 투자자로서 대화와 적극적인 소유권을 중시함.
- (ESG 평가 포인트) 지속가능성 및 ESG 평가 작업은 투자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이 때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개별 기업의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해 분석하는 MSCI ESG 조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심층보고서도 활용함.
 - － 강력한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잘 관리되는 회사가 성공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으며, 투자

27) 1881년에 영국 에딘버러에 설립됐으며,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오피스가 있음.

대상 기업과의 광범위한 대화는 해당 기업이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전략에 통합하는 정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 유용한 통합공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므로 투자 대상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6] 오아시스(Oasis Management Company Ltd.)²⁸⁾

-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거해 기업, 이해관계자 및 주주의 성공을 위해 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
 - (ESG 투자 원칙)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요소가 투자 대상기업 분석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기존 재무 분석과 함께 ESG 분석을 통합하고 있음.
 - 취약한 ‘E’ 및 ‘S’ 요소는 기업에 대한 각각 중대한 장기적 위험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초래하며, 불량한 ‘G’ 요소는 기업의 법률 미준수 경향과 소액주주 보호 미흡 등의 매우 위험한 투자를 야기함.
 - 투자대상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투표에도 참여함.
 - 자산운용사로서 대화(engagement)와 적극적인 소유권 행사는 당사의 관리 방식의 핵심 요소임.
 - (ESG 평가의 포인트) Oasis는 잠재적인 투자 기회와 접근 방식을 분석 시 ESG 요소를 고려
 - 이 EGS 중요과제를 파악할 때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 문제에 집중함.

28) 2002년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설립했으며, 홍콩, 일본 등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음.

- ESG 중점 파악 대상은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다양성, 환경 및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기업 전략, 자본 배분, 장기주의를 장려하는 보상, 소액주주에 대한 공정성, M&A 공정성, 주주 참여 등임.
- 기업에 대한 기본 실사, 심사 및 재무 분석 외에도 해당 기업과의 광범위한 대화는 이 기업의 ESG 요소 이해 및 전략에의 통합 정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Oasis는 매년 200개 이상의 기업을 만나며, 50개 이상의 기업에 상세한 대화 서신(engagement letters)을 보냄.

⑦ 콰에로 캐피탈(Quaero Capital LLP)²⁹⁾

- ESG 요소를 재무 분석에 통합하면 기업에 대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 (ESG 투자 원칙) ESG 요소를 재무 분석에 통합하면 투자대상기업의 사업 운영, 재무 및 평판 위험을 이해할 수 있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함.
 -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
 - 투자대상기업의 환경 전략 및 핵심 전략과의 연관성을 파악
 - (ESG 평가의 포인트)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영향 관리 및 그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
 - 기업의 환경 전략 및 핵심 전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고된 핵심성과지표(KPIs)와 그 방향을 지원하는 대응책을 파악함.

29) 영국 런던에 소재한 투자관리회사로, 2005년 설립된 Quaero Capital의 계열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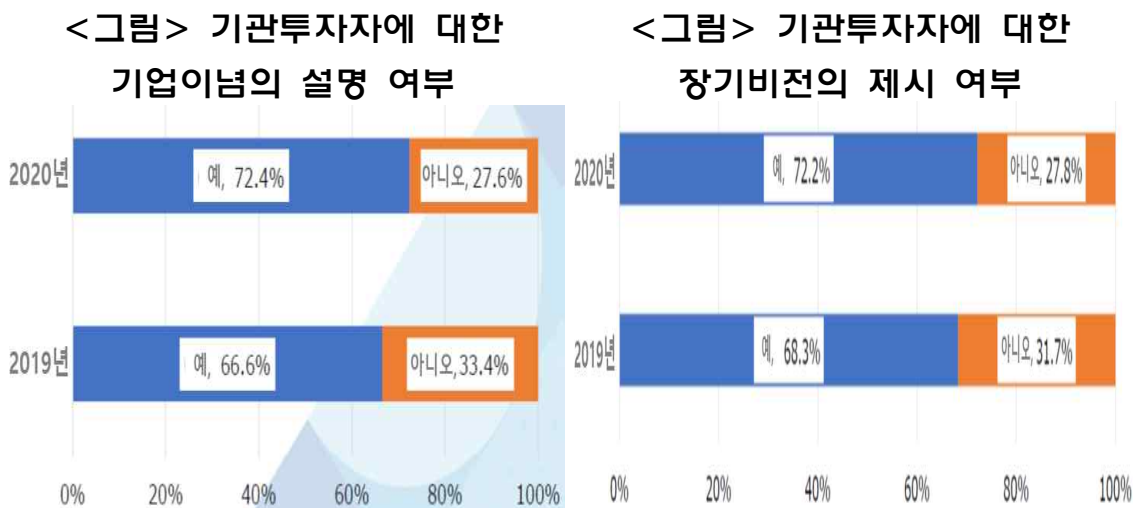
2 기업-투자자 간 대화(engagement) 대응 현황

□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책정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대응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등이 진전되고 쌍방간 대화(engagement)가 증가

① 기업-투자자 간 대화 내용

□ 기업-(기관)투자자 간 대화(engagement) 주제는 기업이념 논의, 장기비전 제시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변화

- 2020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투자자에 대해 기업이념을 설명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의 60%대보다 상승한 것임.³⁰⁾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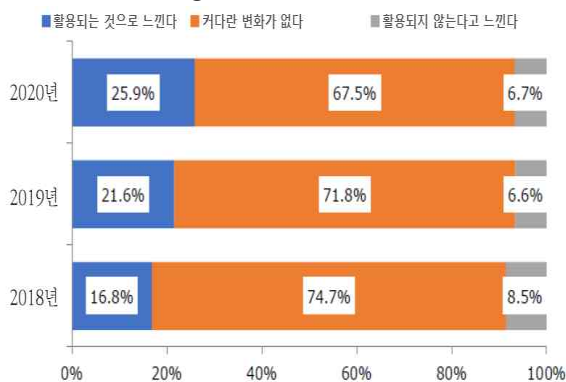
30) 일본 연금기금인 GPIF는 운용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 평가, '목적'을 가진 건설적 대화'(engagement) 실태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매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이번 조사는 2021년 1~3월 기간동안 2,186개사 설문대상 기업 중 681개사(응답률 31.2%)의 응답기업을 토대로 시행

-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 영향,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종업원 건강, 안전과 근로방식 개혁 등 S(사회)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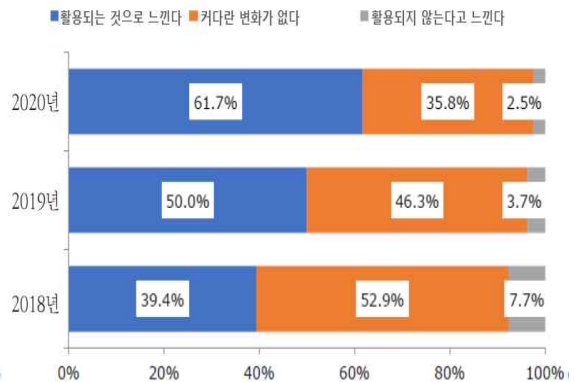
□ 투자대상 기업은 기관투자자가 자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통합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

- 통합보고서가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 비율은 60%를 상회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16.8% → 19년 21.6% → 20년 25.9%)

<그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활용에 대한 인식



<그림> 통합 보고서의 활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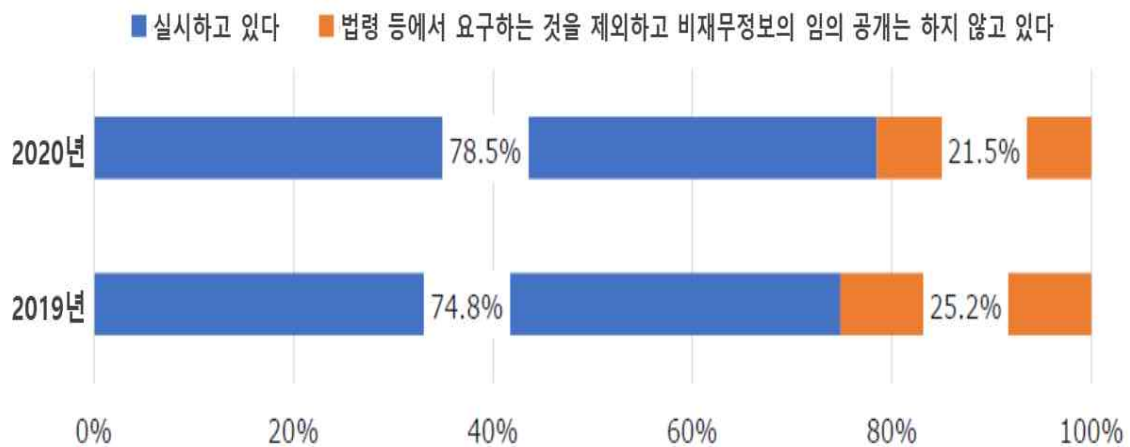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② 기업의 정보 공시

□ 상기 일본 기업의 78.5%가 ESG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의 공시(임의)를 실시해 전년의 74.8% 대비 상승

- 기관투자자에 대한 ESG 등의 비재무 정보의 설명은 주로 IR 미팅(2000년 80.8%), 결산설명회(동 59.4%)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ESG에 특화된 설명회를 통한 비재무 정보의 설명은 많지 않음(동 14.0%, 전년 11.2% 대비 소폭 상승).
- 통합보고서 등 기관투자자 대상의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91.1%의 기업이 영어 버전도 함께 작성함.

<그림> ESG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의 임의공시 실시 여부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③ ESG 활동에서의 주요 과제

□ 기업의 ESG 활동에서 주요한 과제 순위는 ①기업지배구조(71.7%) ②기후변화(63.6%) ③다양성(43.2%)으로 나타남.

- 이것은 지배구조(G), 환경(E), 사회(S) 부문의 대표적 이슈 중 전년보다 응답 비율이 크게 상승한 과제는 기후변화(+9.7%), 건강과 안전(+8.0%)으로, 기후변화 관련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반영되었음.

<표>ESG 활동에서의 상위 10대 과제(총 25개 항목)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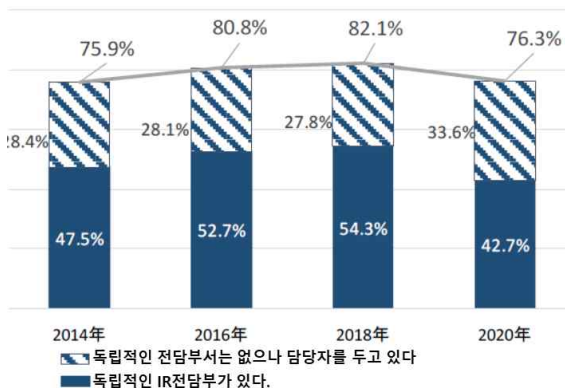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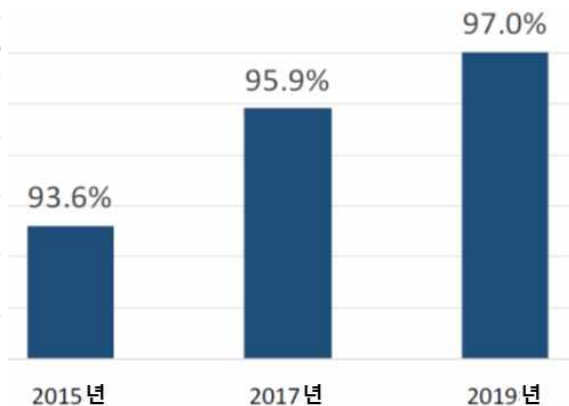
2020년 순위	2019년 순위	주요 과제	2020년	2019년	증감
1	1	기업지배구조	71.7%	70.8%	+0.9
2	2	기후변화	63.6%	53.9%	+9.7
3	3	다양성(diversity)	43.2%	44.0%	-0.8
4	5	건강과 안전	40.6%	32.6%	+8.0
5	4	인권과 지역사회	37.0%	34.7%	+2.3
6	6	제품서비스의 안전	3.7%	30.8%	-0.1
7	7	위험 관리	28.6%	29.8%	-1.2
8	9	공급망	23.5%	20.2%	+3.3
9	8	정보 공시	20.4%	23.3%	-2.9
10	10	이사회 구성·평가	17.1%	16.2%	+0.9

주: 표의 증감에서 빨간색은 전년대비 '상승'한 항목임.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
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④ 기업의 투자자와의 대화 체제

□ 일본 상장기업의 약 80%가 IR(Investor Relations) 전담
부서와 담당자를 두고 있음

<그림> 독립된 IR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둔 상장기업의 비율<그림> IR 활동에 최고경영자가
관여하는 상장기업의 비율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0. 「企業と投資家による 建設的対話の促進に向けて」

- 기업의 최고경영진(대표권을 가진 회장, 사장, CEO 등)이 IR 활동에 관여하는 상장기업의 비율은 97%로 나타남
- 기업 내 리포트 보고나 이사회·경영 회의에서의 보고를 통해 투자자의 의견과 그 대응을 경영진이 공유하는 대응도 진행

I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일본의 ESG 정책 특징과 전망

-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UN, G20 및 EU 등에서의 ESG 대응 중시 및 ESG투자 확대라는 국제사회 흐름의 국내 적용, 글로벌 ESG투자의 유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첫째, 「일본부흥전략」과 같은 국가 성장전략을 통해 ESG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을 비롯한 각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의 대응을 보임.
 - 둘째,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유럽과 같은 의무화가 아닌 기업이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함.
 - 따라서 대부분의 명칭이 가이드라인, 가이드스, 실무지침 등의 형태를 가짐.
 - 셋째, ESG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주로 G 및 E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및 사회에의 대응(ES through G)을 중시하는 한편, 세계적인 조류로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E가 중요하기 때문
 - 넷째, 거버넌스(G)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은 리스크 억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경영자원의 집약을 통한 자본생산성(ROE)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이토보고서(2014년)에서는 일본의 자본생산

성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ROE 8%를 목표로 제시

- 다섯째, ESG 대응과 관련해 최신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정판과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표
 - － 기후재무정보 공개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TCFD 가이드선스」(2018년)를 민간 주도의 TCFD컨소시엄이 업그레이드하여 2020년에 개정판(「TCFD 가이드선스2.0」)과 사례집을 발표
 - － 환경성도 TCFD를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권고안을 매년 보완하여 발표

□ 일본 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한 ESG 중시 및 ESG투자 확대, 정부의 ESG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준을 참고한 통합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재무 정보와 ESG 등 비재무 정보를 포함한 통합보고서를 발행하는 일본 기업이 크게 확대(2010년 23개 → 2020년 579개)
- 둘째, ESG정보 공개 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국제통합보고프레임워크」, GRI의 「GRI 가이드라인&스탠더드」, 경제산업성의 「가치협력창조 가이드선스」 등 국내외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보고서를 작성
 - － 또한 다수의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현재 TCFD에 지지를 표명한 일본 기업기관은 377개로 국별 기준 1위를 차지

- 셋째,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라 기업-투자자 간 대화에서 코로나 사태의 실적 영향, 향후 시장변화에의 대응, 종업원의 건강·안전과 근로방식 개혁 등 S(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제가 증가
 - 넷째, ESG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장래 기업가치 향상과 함께 미래 이익의 안정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인식
 - 다섯째, 비재무정보 공시의 충분성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기업 29% : 투자자 3%), 투자자의 ESG투자판단에서 주요 장애 요인으로 ‘ESG정보 공시 불충분’, ‘ESG투자의 적절한 평가방법 미확립’, ‘ESG투자 관련 체제 불충분’ 등이 지적
- 향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E·S·G 중 S(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제적인 동향 파악,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S(사회)에의 대응책 마련도 예상됨.
 - 기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ESG 활동과 함께 일체적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과제를 정리하고 기업별로 고유한 비재무정보의 제공을 통해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

-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은 지금까지의 경영관 및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고 SDGs*를 포함한 ESG의 관점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할 전망

* SDGs의 17개 목표 중 세 번째가 ‘보건과 웰빙’이며, 여기에 감염증 방지에 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ESG투자를 위한 평가 모델로서 기업의 수익력(ROE) 향상과 ESG 대응 노력을 모두 평가하는 지표로서 ROESG 모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

2 시사점

- 최근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ESG 투자 규모, ESG 보고서 발행,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
 - 전세계의 ESG투자 규모는 2012년 13조 달러에서 2020년 35조 달러로 성장.
 - 일본의 투자규모(2.9조 달러)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3,900억 원(약 3.5억 달러)으로, 규모 면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음.³¹⁾
 - ESG보고서 발행은 상장기업 일부에서 공개되고 있고,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³²⁾
 -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2021.1월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바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산업부에서 ESG지표 표준화를 위해 한국형 ESG 지표('K-ESG 지표')를 발표할 예정임.
- 향후 ESG에 대한 관심이 지배구조(G)와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부문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와 기업은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정부) 현재 검토 중인 'K-ESG 지표'는 이용자(ESG보고서 작성자)를 위해 각 지표의 작성 내용범위*와 타 지표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부가할 필요.

31) 금융위원회. 2020.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보도자료. p. 4.

32)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드」 제정 및 교육 동영상 제작」. 보도자료. p. 1.

- 코로나 팬데믹 지속, 국내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추진³³⁾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 지표 중 ‘인권’도 중요해질 전망
- 또한 활용자(투자자)가 중시하는 중요과제(materiality)와 ‘K-ESG 지표’간 연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³⁴⁾
- ‘K-ESG 지표’의 최종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ESG 정보공개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모범사례 추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갈 필요
- 기업, 투자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교육 등의 실시·지원을 통해 ESG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필요성을 각계 각층에 전파할 필요

□ 기업은 ESG 경영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며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ESG 경영 도입은 초기에 비용(initial cost) 요소 측면이 강하지만, 나아가 소비자의 평판, 투자자금 유치 환경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return)가 발생
- ESG에 대한 관심이 환경(G)과 지배구조(G)에 집중되어 사회(S)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바,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직장 내 감염위험 감소 등 사회(S) 부문에 대한 중시로 ESG경영의 균형을 추구해야 것임.³⁵⁾

33) 2011년 UN 인권이사회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고 국가별 행동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을 권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업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마련해 정부에 NAP의 수립을 제언하였음. 이후 2021.6월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34) 앞서 ‘일본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ESG 요구 내용’에서 보았듯이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중요과제(materi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ESG 보고서에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과제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 때 「K-ESG 지표」 내 각 항목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지표의 최종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ESG 평가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중시는 공급망 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소기업은 ESG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³⁶⁾

□ 일본과의 ESG 경험 아젠다

-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은 양국 모두 중요한 이슈이므로 ESG의 E(환경) 관점에서 CO2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경제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 일본에서는 ESG 관련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의 ESG활동 및 정보공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벤치마크 차원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국내에 소개할 필요
 - 주요국 정부의 ESG 정책·제도 추진 및 기업의 도입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에 이를 발신
- 일본 기업들은 ESG의 S(사회)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확대, 건강관리 중시 등 종업원의 근로여건 대응을 강화. 이러한 변화된 여건 하에서 일본 내 우리 기업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애로 요인을 조사할 필요

35)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자가 중시하는 ESG 항목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음. 즉 노사관계(해고, 급여감액 증가), 종업원지원 체제(감염위험 감소 등), 직장환경 정비(재택근무 도입), 공급망 관리(부품조달 애로)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太田珠美. 2020. 「拡大する ESG投資の評価項目 - 気候変動への対応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も」.

36) 「[이슈분석] 중소기업 현장, ESG 사각지대 '우려'」. 2021. 『전자신문』. (6월 6일)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금융위원회. 2020.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보도자료.
-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제정 및 교육 동영상 제작」. 보도자료.

<일문 자료>

- 加藤祥子, 島崎奈穂子, 櫻井洋介. 2020. 「コロナ禍で強まる、企業の ESG/SDGs 対応への期待」.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 経済産業省. 2017. 「価値協創のための統合的開示・対話ガイダンス - ESG・非財務情報と無形資産投資 -」 (価値協創ガイダンス).
- 経済産業省. 2018. 「ダイバーシティ2.0 行動ガイドライン」.
- 経済産業省. 2018.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 (CGSガイドライン).
- 経済産業省. 2018. 「統合報告・ESG対話フォーラム報告資料」.
- 経済産業省. 2019. 「ESG投資に関する運用機関向けアンケート調査」.
- 経済産業省. 2020.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
- 経済産業省. 2020. 「TCFDガイダンス2.0の概要」.
- 高澤美有紀. 2020. 「ESG 投資の動向と課題」.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104). 国立国会図書館.
- 金融庁. 2021.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投資家と企業の対話ガイドラインの改訂について」の公表について」.
- Vincent Cremers, Robin Nuttall, 山田 唯人, Gustav Grundin. 2021. 「ESG経営から育む価値創造の5つの方向性」. McKinsey&Company.

- 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2018. 「ESGと企業経営について」.
- 三菱商事株式会社. 2021. 「サステナビリティ・レポート2020」.
- 小塚 英夫. 2021. 「ESG投資の動向と我が国機関投資家の取組み」. 『共済総研レポート』(№173). JA共済総合研究所.
- 時事通信. 2021. 「企業の対応加速 新市場「プライム」基準厳格化—来年4月に東証再編」. (5月5日).
- 神作裕之, 大崎貞和, 小野 傑, 湯山 智教. 2020. 「ESG投資とフィデューシャリー・デューティー」. 『月刊 資本市場』. 資本市場研究会.
- 野村證券. 『証券用語解説集』(‘エンゲージメント’).
- 伊藤忠商事株式会社. 2020. 「ESG Report 2020」.
- 一般社団法人生命保険協会. 2021. 「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を通じた「株式市場の活性化」と「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0. 「企業と投資家による 建設的対話の促進に向けて」.
-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2015. 「ワーカーズキャピタル責任投資ガイドラインの改訂について」.
- 田村怜, 石本琢. 「ESG投資の動向と課題」. 『ファイナンス 2020 Jan.』. 財務省.
- 齊藤誠. 2019. 「日弁連のESG ガイダンスについて」.
- 佐々木隆文・花枝英樹. 2021. 「日本企業のESGに対する意識調査」. 『Discussion Paper Series 21-J-004』. 経済産業研究所(RIETI).
- 酒巻雅純. 2017. 「ESG投資の動向と課題—重要性が高まる機関投資家の視点から—」. 『証券経済学会年報』(第51号別冊). 証券経済学会.
-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 KPMG. 2021. 「日本企業の統合報告に関する調査2020」.
- 太田珠美. 2020. 「拡大するESG投資の評価項目 — 気候変動への対応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も」. 大和総研.
- TCFD Consortium. 2020. 「気候関連財務情報開示に関するガイダンス2.0事例集」.

板津直孝. 2020. 「非財務情報開示の現状の課題と内閣府令の改正」. 『野村サステナビリティクォーターリー』. 野村資本市場研究所.

環境省. 2021.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ー 気候関連リスク・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オ分析実践ガイド ver3.0」.

荒尾拓人, 清水亮介, 小川佳也. 2020. 「ESG投資を巡るわが国の機関投資家の動向について」. 『Reports & Research Papers』. 日本銀行.

GSIA. 2020.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IMF. 2021. 「ESG Monitor」 (January 5).

Peter Lacy & Jakob Rutqvist. 2015. “Waste to Wealth.”

WFE. 2018. “WFE Revised Metrics June 2018.”

<홈페이지>

経済産業省. 「健康経営銘柄2021」に48社を選定し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4004/20210304004.html>).

経済産業省. 「女性活躍に優れた上場企業を選定「なでしこ銘柄」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diversity/nadeshiko.html>).

経済産業省. 「重要なお知らせ」.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diversity/kigyol100sen/index.html>).

経済産業省. 「TCFDガイダンス2.0が公表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0/07/20200731002/20200731002.html>).

国土交通省. 「不動産分野におけるESG－TCFD実務者WG」.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5_000215.html).

三菱商事. 「会社概要」.
(<https://www.mitsubishicorp.com/jp/ja/about/profile/>).

環境省. 「環境情報開示基盤整備事業とは」.
(<https://www.env-report.env.go.jp/outline.html>).

Comgest. 「運用プロセス」. (<https://www.comgest.co.jp/process/>).

TCFD. 「Support the TCFD」.
(<https://www.fsb-tcfid.org/support-tcfid/>).

TCFD Consortium. 「TCFDコンソーシアム設立の背景」.
(<https://tcfid-consortium.jp/>).

UNPRI. 「About the PRI」. (<https://www.unpri.org/pri/about-the-pri>).

202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1
21-002	2020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2021.1
21-003	일본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	2021.2
21-004	러시아의 팬데믹 방역 · 보건 산업 : 코로나19 방역	2021.2
21-005	한-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2021.2
21-006	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2
21-007	미국·EU 정부의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	2021.3
21-008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지역 소비시장 변화	2021.3
21-009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2021.3
21-010	EU 탄소국경조정제 논의 동향과 추진 전망	2021.3
21-011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2021.3
21-012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과 주요국 동향	2021.4
21-013	2021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전략 가이드	2021.5
21-014	코로나19 일본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21.5
21-015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2021.6
21-016	러시아의 그린에너지 전환과 한러 협력방안	2021.6
21-017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1.6
21-018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 변화	2021.6
21-019	캐나다 스마트팜 시장 동향	2021.6
21-021	한-콜롬비아 FTA 발효 5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2021.7
21-022	2021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2021.7
21-023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1.7
21-024	중남미 제약산업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1.8
21-025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2021.8
21-026	해외 기업 ESG 대응 성공사례	2021.8
21-027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2021.8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21.1
21-002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일본	2021.1

21-003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2021.1
21-004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서남아	2021.1
21-005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동	2021.1
21-006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유럽	2021.1
21-007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CIS	2021.1
21-008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2021.1
21-009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남미	2021.1
21-010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아프리카	2021.1
21-011 ~ 21-090	2021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21.1
21-091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1
21-092	2020년 외국인투자주간(IKW 2020) 결과보고서	2021.1
21-093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온오프라인 가이드북	2021.1
21-094	외국인투자가이드 2021	2021.1
21-095	外國人投資ガイド 2021	2021.1
21-096	外商投資指南 2021	2021.1
21-097	KOTRA와 함께하는 수출기업화 성공스토리 2020	2021.1
21-098	제15회 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결과보고서	2021.1
21-099	Business in Korea 2021	2021.1
21-100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2021.1
21-101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2021.1
21-102	한국생활가이드 2021	2021.1
21-103	2019/20년 KSP 정책자문보고서 모잠비크 :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2021.2
21-104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Mozambique : Modernization to Improve the Driving License and Driving Practice System in Mozambique	2021.2
21-105	Pesquisa de Política e Consultoria para a Modernização do Sistema de Treinamento para Carta de Condução em Moçambique	2021.2
21-106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Brazil :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2021.2
21-107	2019/20 Relatório Final da Consulta da Política de KSP : Consulta de Política para Otimização do Sistema de Automação da Propriedade Industrial no Brasil	2021.2
21-108	2019/20 Ecuador KSP Final Report : Policy Consultation for Strengthening Export Capability and Promoting Exports to Asia, Ecuador	2021.2

21-109	Programa de Transferencia de Conocimientos (KSP) Ecuador 2019/20 Informe Final : Recomendación de Política para Fortalecer la Capacidad de Exportación y Promover la Exportación a Asia, Ecuador	2021.2
21-110	2019/20년 KSP-ADB 공동컨설팅 인도 :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기술 강화 방안 컨설팅	2021.2
21-111	2019/20 KSP-ADB Joint Consultation Report India : Skill Enhancement to Improve Port Operations in India	2021.2
21-112	페루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수립	2021.2
21-113	Modernización y Expansión de las Capacidades de Construcción y Reparación Naval de Buques Panamax y Post-Panamax en Peru	2021.2
21-114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Shipbuilding and Repair Capacity of Panamax and Post-Panamax Vessels in Peru	2021.2
21-115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동향보고	2021.2
21-116	KOTRA 도쿄 IP-DESK 2020년 정보레터 모음집	2021.2
21-117	포커스 on 코리아	2021.2
21-118	2021 KOTRA 서비스 가이드북	2021.2
21-119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2021.2
21-120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2021.2
21-121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2021.2
21-122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21.2
21-123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이슈리포트	2021.2
21-124	K-방역, 위기를 뚫고 희망을 열다	2021.3
21-125	싱가포르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싱가포르 노무 가이드	2021.3
21-126	KOTRA, 해외 진출의 희망이 되다	2021.3
21-127	해외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 보고서	2021.3
21-128	Taxation in Korea 2021	2021.3
21-129	Customs Clearance in Korea 2021	2021.3
21-130	Industrial Sites in Korea 2021	2021.3
21-131	Labor Laws in Korea 2021	2021.3
21-132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2021	2021.3
21-133	한국 스마트팜 디렉토리북 2021 = Directory of Korean Smart-Farm Solutions	2021.3
21-134	2020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전략 보고서	2021.4
21-135	Living in Korea 2021	2021.3
21-136	韓國生活ガイド 2021	2021.3
21-137	韓國生活指南 2021	2021.3

21-1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1	2021.3
21-139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2021.4
21-140	2020 수출애로 우수상담 사례집	2021.4
21-141	2020 해외 전문인력 정보조사 보고서	2021.4
21-142	2020 IP-DESK 백서	2021.4
21-143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베트남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2021.4
21-144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Advancing Energy Safety Management	2021.4
21-145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베트남 농산물 국내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2021.4
21-146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Promoting Viet Nam's exports of key agro products to Korea	2021.4
21-147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2021.5
21-148	전기전자산업 해외 시장동향 및 시사점 : 반도체 장비, 모바일 디스플레이, 3D 프린팅, IoT 센서 산업 중심	2021.5
21-149	FTA 초보지만 괜찮아!	2021.6
21-150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2021.6
21-151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Work Program :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Used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 Regulations of Viet Nam for K-V Investment Promotion	2021.6
21-152	CHƯƠNG TRÌNH HỢP TÁC KINH TẾ FTA Hàn Quốc-Việt Nam năm 2020 : Phổ biến các quy định của Việt Nam về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nhằm thúc đẩy hoạt động xúc tiến đầu tư Hàn Quốc-Việt Nam	2021.6
21-153	IP-DESK 주요 상담사례 (FAQ)	2021.6
21-154	2021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2021.6
21-155	2021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2021.6
21-156	한 권에 담아낸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KOTRA가 전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	2021.6
21-157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6
21-158	한-베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6
21-159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	2021.7
21-16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2021.7
21-161	2020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2021.7
21-162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20	2021.7
21-163	2020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21.7
21-164	2021 베트남 비즈니스 팁	2021.7
21-165	나는 외투 기업에서 일한다: Q&A로 살펴본 외투기업의 A to Z	2021.7

21-166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1.8
21-167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 알짜팁 가이드	2021.8
21-168	2021 베트남 파워엘리트	2021.8
21-169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21.8
21-170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 : 한손에 쏙! 한눈에 쏙!	2021.8
21-171	해외 탄소시장 현황 및 진출 가이드	2021.8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글로벌 신통상포럼 자료집	2021.5
21-002	Global Project Plaza 2021 :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	2021.6
21-003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9차 수요포럼: 변화하는 해외건설의 새로운 노멀	2021.6
21-004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인니 진출전략 웨비나	2021.6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채널)
전화: 02-3460-7010 Email: clean@kotra.or.kr Fax: 02-3460-7902
우편: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



작성자

◆ 아대양주팀 김은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형근



Global Market Report 21-028

일본의 ESG 대응전략 분석과 시사점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아대양주팀 김은지
(02-3460-3221)

ISBN : 979-11-6490-981-0 (95320)

